

금주의 기도



하나님도 일하시니 피조물인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섬도 가져 다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고 그 지으신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7월 20일 (토) 제 173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휴가, '심미 즐거움' 주는 하나님의 은혜!

## 크리스천이 휴가나 여가 선용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들 제안

음악에도 침표가 있다. 침표 없는 음악, 침표 없는 노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 누구도 침표 없는 악보를 보고 노래할 수 없다. 아마도 그 곡이 끝나기 전에 이 세상과 이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서의 적당한 침표, 그것은 피곤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일을 통해서 생활 자원을 생산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

킬 '침'을 통해 다시금 건강한 생산적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 쉬지 않고 일에 치이다 보면 에너지가 바닥난다. 심하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빠져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 피해는 그대로 사업체, 기업에 미치기 마련. 많은 기업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이유다. 휴가는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일하기 위한 자기 정비요, 투자다. 한마디로, "잘 쉬는 것"이 경쟁력인 셈이다.

크리스천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여가/휴가'란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여가, 곧 쉬는 의미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민족에게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안식은 해방이었고, 해방된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안식일을 통해 그들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호와와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식은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날은 종들도 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가축도 쉴 수 있는 날로, 소외됨 없이 공동체 모두를 살림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창2:3),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이다.

도로 구원사역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다. 안식이란 결국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피조물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이요,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이 누리게 하는(요10:10) 주님의 은혜다.

이러한 안식, 쉼의 정신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이하는 여가의 시간은 일과 일 사이에 막간으로 주어지는 자투리시간,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도피하여 자유를 얻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가는 일에 찌든 이들이 소비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적인 장소로 도피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다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 점에서 로버트 리(Robert Lee)는 크리스천인의 '여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안식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

(1)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2) 우리는 시간의 질적인 면을 의식하면서 그것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3)하나님이 그러 하시듯이 우리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4)삶의 진정한 본질은 기쁨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가는 더 이상 육신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을 위한 시간일 수 없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고백한 칼뱅의 표현대로, 여가는 우리로 주어진 모든 시공간 속에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창조세계의 다양성과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바뀐다. 우리는 여가를 통해 영과 육의 깨어진 균형을 다시 찾고, 나를 발견하며 또 나를 넘어 이웃으로, 온 세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창조적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마지막날 회장 정순원 목사(왼쪽)가 강사 정연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성결한 삶" ...무너진 경건 회복을!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의 저녁집회와 2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뉴욕교협 45회기의 표어인 "성결한 삶"을 주제로 내건 할렐루야 대회는 대회 때마다 시종일관 "성결한 삶"을 외쳤으며 강사 정연철 목사 역시 메시지마다 강조했다.

첫날 대회사에서 교협회장 정순원 목사(빛과소공교회)는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실현하는 종으로 거듭나게 되면 교회와 교계 그리고 사회가 성결로 변화되어 서로 신뢰하는 사회 교계가 되어질 것이며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속히 준비되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철 목사(삼양교회)는 첫날 "문제의 원인은 나"(창35:1-5), 둘째 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느1:1-5), 셋째 날 "귀있는 자는

들으라!"(마13:5-9)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강사 제의를 받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건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주셨다"며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경건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또 "자신이 목사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묻고 본문에서 야곱집안의 사건은 원인에 따른 결과로 "1)야곱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친 실수 2)야곱의 아들들의 잘못된 처신, 보복 3)자기성찰이 전혀 없는 야곱"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단을 쌓았는데

(3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누구의 돈인가? ...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었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훈련에 초대합니다.

# 우리들의 친구 무슬림

##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복음증거를 가로막는 역사, 문화, 신학,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을 없애주며, 통합적 정보와 실제적 이해로 '사람 무슬림에게' 다가가도록 돕는 무슬림 선교훈련.

**강사 :** 김신숙 Biblical Christian Mission 대표  
정마태 MIENAAI 공동대표  
김기학 MIENAAI 실행위원  
박한상 MIENAAI 상임총무

**일시 :** 2019년 7월 15-17일(7-10pm)

**장소 :**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남가주사랑의교회 동시강의

**참가비:** 40\$(당일접수)

**주관 :** Biblical Christian Mission | www.gm.edu

**문의 :** 그레이스미션 대학교 (714)525-0088 | e-mail: gm@gm.edu



● 발행인 칼럼 ●

###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주간 필자가 사는 뉴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연합집회가 있었다. 감동도 컸고 아쉬움도 있었다. 오랜 전통을 잘 계승하려는 분들의 진지한 수고와 그 성실한 내용이 귀하였고 그에 걸 맞는 동참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쉬움이 있었다. 뉴욕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연합모임이 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들이 말할 것이다. 연합모임이 옛날과 다르다고. 교회 연합은 어려운가? 교회가 하나 됨은 지난(至難)한 일인가?

누구나 알고 보았듯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가야할 길이 연합이요 하나 됨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교회의 존재론적 이유도 있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교회들은 연합되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말씀에 시비를 걸자가 누가 있겠는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 됨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말씀의 요청임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일구지 못하는 무슨 연유인가? 하나 됨의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랜 또는 신선한(?) 행사의 이름만을 치켜세우고 그 깃발 아래 다들 모이라고 외치니,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모인 자들도 곧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연합을 요청하는 상황이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 됨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연합도 연합이 아니다.

진리만이 시대를 관통한다. 진리만이 모든 이의 마음을 묶을 수 있다. 진리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를 부르다. 연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통곡하게 한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자복을 진리는 앞서 자아낸다. 연합의 깃발은 그것을 들고 있는 자신들은 물론,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자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될 공감대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연합의 일들에 눈을 뜨게 함이 순서임이 분명하다. 믿는 자의 연합이 어찌 인간의 노력 위에서만 세워지겠는가. 진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연합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점점 축소되고 인간의 노력 이야기만 자꾸 커지면 그 자체가 진리로 하나 됨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연합 모임을 주저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연합이 모임과 함께 끝나는 일이 적지 않게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들 속에 또 다른 시간의 연합모임에 나올 걸림돌들을 차곡차곡 세워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리 명분이 커도 미래를 바꿀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연합에 계속 시간을 쏟을 이내(?)의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연합이 약해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본다. 어떤 상황에도 연합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연합 외에는 적당한 실망이 없는 연합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부지런히 연합에 참여하여 오히려 연합의 부족한 한 모퉁이를 작게라도 붙잡고 있다.

그렇다. 연합은 복음의 명령이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이다. 격려가 없어도, 외면이 있어도, 각 지역에서 그리고 그 지역을 뛰어넘는 연합에 묵묵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됨을 확신하며 우리의 든든한 위로가 됨을 고백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수단, 또 다른 ‘시리아’ 될 수도 있다

BBC, 수단 현 상황 예측과 크리스천의 잠재적 활약 기대

지난해 12월 수단 정부가 '빵값'을 3배 인상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터뜨리는 계기가 됐고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다. 이런 혼란을 틈타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군부 정부를 선포했다. 그러나 곧바로 시민시위대는 즉각 군부정부를 문민정부로 전환하라며 거리를 점거했다.

#### 수단 공화국에 대한 간략한 사실

수단의 공용어는 아랍어와 영어, 국어는 아랍어다. 아랍어로 “흑인의 땅”이라는 뜻의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국가다.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 독립국이 됐다. 독립 당시 수단의 남부와 북부는 각자 다른 성격을 보였다. 영국 정부가 남북을 따로 나눠 운영하는 정책을 시행한 영향이었다. 남부는 농토,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하고 흑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 반해 북부는 주로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 문화 경제적 괴리와 맞물리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남북전쟁은 1차, 2차에 걸쳐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2011년 남수단이 공식 독립

자가 속출했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월 11일 결국 바시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지만 국외로의 범죄인 인도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바시르 전 대통령 소속당이던 국가당은 대통령 축출이 위헌이라며 규명된 당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수단 군사위원회 산하 대변인은 전 집권당이 민간 과도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언뜻 보면 민주정부로 가는 길목서 국가적 갈등을 겪는 여느 나라와 닮아 보인다. 하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시리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가득하다. BBC의 군사전문기자 조나단 마커스 기자의 분석과 함께 혼란 속에 놓인 '수단'을 정리해봤다(Is Sudan a new regional battleground?).

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됐다. 군사위원회 측은 국내에서 바시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는 있지만 국외로의 범죄인 인도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바시르 전 대통령 소속당이던 국가당은 대통령 축출이 위헌이라며 규명된 당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수단 군사위원회 산하 대변인은 전 집권당이 민간 과도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이뤄졌던 시리아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개입이 예상된다고 마커스는 말했다.

수단이 경제적 위기로 흔들릴 때 UAE와 함께 즉각적인 원조 활동을 펼친 것도, 아부다비로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장을 주도한 것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였다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군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 다른 이웃 국가 터키와 카타르는 수단의 이슬람주의자 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수단 내부의 문제는 시리아가 그랬듯 외세의 영향력에서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 시리아 사태와 비슷한 '대리전' 양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10년 전 '아랍의 봄' 사태를



### 주변국가 잇속 쟁기기에 등 터지는 상황 남수단은 이슬람 남하 막는 방어막 역할

하며 종전을 맞았다. 남수단의 독립으로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 자리를 알제리에 넘겨주게 됐다.

국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사리아법률을 실시하기도 한다.

#### 현 상황은?

지난 1월 11일 결국 바시르 전 대통령은 체포됐고 쿠데타 지도자 아와드 이븐 아우프가 이끄는 군부는 과도기 2년간 통치하겠다고 발표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18년 1월 8일, 식료품값 폭등과 관련한 시위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총리를 교체했음에도 빵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2018년 12월 20일 '빵값 3배 인상' 규탄 시위가 발생한다. 이 시위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며 사망

아우프 장관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자리를 이어받은 담델 팻타 알 부르한이 군사위원장은 13일 TV 연설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야간 통행금지를 끝내고, 즉시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모든 지방 정부들을 해산하고, 부패를 척결할 것을 맹세하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를 이끌어온 수단 전문직업협회(SPA)는 "국민의 요구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계속 시위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원 구조조정, '부패 지도자' 체포, 바시르 전 대통령 소속 민병대 해산 등을 주장했다.

현재 바시르 전 대통령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쿠데타 군부는 그가 무사하다고 전했다. 바시르 전 대통령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국

선거에 후보를 낼 순 있다고 말했다.

#### 분석

BBC 군사전문기자 조나단 마커스(Jonathan Marcus)는 수단의 현 상황을 시리아와 비교하며 또 다른 비극을 경고했다. 그는 시리아 사태 역시 독재정권을 몰아내려는 시도 이후에 외세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단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당시 수단은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명명돼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습 대상이 됐다.

수단은 함께 경제 제재를 받던 이란의 우방이었다. 나중에는 사우디가 이끄는 수니 이슬람 동맹이 수단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많은 수단의 군부 세력이 사우디와 함께 논란 많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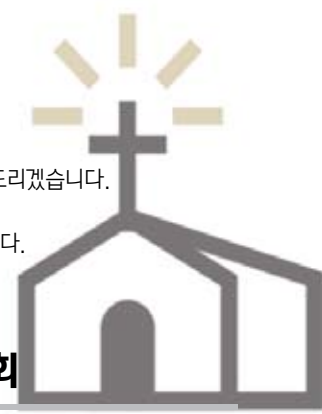
## 담임목사 청빙

나성 제일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 소 요리 문답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설립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선교와 예배와 지역봉사로 열애이 지역을 섬겨 왔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랑으로 다가오는 반세기의 나성 제일교회 역사를 새로 쓰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장로 교회 목사  
정규 신학 대학 (M. Div) 이상의 학위  
이중 언어(한국어/영어) 가능 하신분  
담임 목회 5년 이상의 경력
- 기타 사항**  
제출 기간 : July 05, 2019 - July 25, 2019  
서류 제출처 : 나성 제일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주소 :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전화 : 213-327-6859 (신 피터 서기 장로)
- 제출서류**  
이력서 한/영 1부 (최근 사진 첨부 본인/가족)  
졸업 증명서 1부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본인/가족 소개서  
신앙고백 및 목회 비전서  
출석 교회 주보 2부  
설교 동영상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 성함/전화 번호 포함)

\*서류 제출은 위 주소로 보내 주시고 문의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Email : losangeles1church@gmail.com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드리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성 제일 교회 청빙위원회  
LA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 담임목사 청빙

KAPC 동남부 노회 소속 멤피스제일장로교회(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mphis)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소재한 27년 된 교회로 자체 성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대 목사님의 은퇴로 신실하게 목회하실 2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담임 또는 부 교역자로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소명과 사명 의식이 투철하신 분  
신체 건강하며 가족이 화목하신 분  
1965년 이후 출생 하신 분  
이중 언어 사역이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대학 및 신학 대학 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현 노회 소속 증명서  
사모님 신앙 고백서  
목회 철학  
최근 설교 동영상 1편 또는 설교 동영상 확인 링크 주소 추천인 2명의 봉인추천서 또는 연락처
-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마감 : 2019년 8월 31일  
우편 주소 : 5740 Pleasant View Rd, Memphis, TN 38134  
온라인 주소 : atmc1348@gmail.com

멤피스제일장로교회 청빙위원회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emphis



### 휴가, '쉼의 즐거움' 주는 하나님의 은혜!

(1면에서 계속)  
분주한 일상에서 갖게 되는 휴가를 통해 기쁨과 쉼의 즐거움을 체감하게 되고, 이로써 깊은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빛나간 휴가 방법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적인 즐거움은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건강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소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비생산적이고 소비지향적인 타락된 삶을 빚어내게 한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에서의 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치 문화, 놀이문화, 휴가문화 등등


이에 속한다. 물론 휴가를 자신의 쇠해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한 휴가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꼭 그러한 형태의 휴가만이 건설한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성경적, 교회적, 신앙적인 휴가라고 생각하거나 고집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심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영성이 아닐까? 서로

의 피곤했던 삶을 위로하며 멀어졌던 부부애를 더 깊고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욱 창조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신앙적이고, 더 지혜로운 일이다. 결론으로, 우리는 휴가를 통해 '쉼의 즐거움'을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 웹스터 사전에는 휴가란 "일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 또는 "즐거거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으로 정의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쉼'은 개념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그저 폭신한 베개를 베고 편히 누워있거나 잠이나 '푹' 자는 것으로서 이해한다. 그래서 휴가를 잠으

로만 보내는 사람도 있다. 참으로 인간에게 있어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다.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을 자랑하기보다 최선을 다한 후에 찾아오는 쉼의 기회를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그분은 더 소중히 생각하실 것이다. 이른 아침 일어나서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을 밟으며 혼자 걸어보라. 하나님도 보일 것 같아 마음이 맑아지리라! 혹은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소근 소근'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걸어 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고마울 것이다. 올 여름에는 온 가족이 쉼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신선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시론

## “극도로 겸손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조직을 바꾸려는 영향력 있는 탁월한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은 극도의 겸손이라고 하였다. 그는 겸손한 성품이야말로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핵심 자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겸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참된 지도자들은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서도 겸손해야만 한다. 믿음은 최대의 성취를 이루고 사랑은 최대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겸손은 그 성취와 변화를 보존한다. 믿음과 사랑으로 놀라운 성취와 변화를 일군다고 해도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성취와 변화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겸손과 정반대의 성품은 교만이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겸손은 성공의 선봉이며 승리의 앞잡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째, 둘째, 셋째 덕목이 다 겸손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고 하셨다. 도끼로 나무를 찍고 톱으로 켜서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끼나 톱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는 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끼나 톱을 만든 자가 있고,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자가 있기에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자랑할 것, 큰 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경륜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겸손이며, 이런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도자나 추종자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였다. 이는 겸손으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 태도들을 공공 무어놓으라는 뜻이다. 잠깐 긴장을 푸는 사이에 교만이 교개를 쳐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니 크로소비 여사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눈멀게 된 것에 감사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신 일이고 자신을 위한 최고의 축복임을 믿은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평생 4천곡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하였고, 우리가 들고 있는 새찬송가에도 22곡이나 수록되어 가장 많은 찬송 곡을 삼입한 작가가 되었다.

교회 일도 겸손하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겸손하게 설교해야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겸손하게 심방해야 목사를 존경한다. 회의를 할 때도 겸손하게,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해야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지 않는다. 부부관계에서도 겸손하면 남편이 더 훌륭해 보이고 아내가 더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진다. 부모님에게도 겸손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녀들에게도 겸손한 부모가 더 존경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서 끝까지 겸손하셨기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지 않는가? 오늘 목회의 현장마다 겸손의 부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키우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다.

### “성결한 삶” ...무너진 경건 회복을!

(1면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희생과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사다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통해 복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이번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 정연철 목사는 “목회 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며 “은혜받기 위해 우리는 외형만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응답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한다.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현하기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가 돼야 응답이 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느헤미야처럼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가 돼야 하고 지도자가 돼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지도자는 민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 돼야 한다. 신앙의 바탕이 튼튼해

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란이 와도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 정 목사는 “본문에 4 가지 밭의 비유를 주셨는데 씨는 말씀, 밭은 마음으로 똑같은 씨로 좋은 밭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하고 “진리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결론에 앞서 말씀하셨는데, ‘귀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마음에 담으라는 의미인데 1)귀 있는 대상은 누구든지의 의미하며 2)귀를 가진 사람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며 3)듣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목사는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①일상생활의 분주함 자주들기 때문에 ②그 말이 그 말로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 ③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소홀 때문에 ④너희에게만 허락된 것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했다. 3일간 인도는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뉴욕장로교회),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네교회)가 맡았으며 경배와찬양은 프라미스교회, 삼양교회가 담당했다.



강사 정연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개회기도는 이만호 목사(직전 회장), 축사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개회축사 이재덕 목사(증경회장), 격려사 박혜림 목사가 했으며 3일간 대표기도는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박태규 목사(뉴욕목사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가 했다. 성경봉독은 김주열 장로(부회장), 손순대 장로(이사장), 백달영 장로(부이사장)이 했으며 헌금기도는 권케더린 목사(수석협동총무), 이지용 목사(대회부준비위원장), 윤오성 목사(하국교회)가 했다. 찬양은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뉴욕장로교회 연합찬양대,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와 뉴욕장로성가대, 뉴욕권사선교회합창단, 뉴욕사모합창단, 박요셉 교수, 김예주, 케리그마남성중창팀, 이광선 집사, 정지형 선생, 윌드밀 알양상블, 제한성 음악감독 등

이 불렀다. 마지막 날 러시아전 사할장단(김바울 선교사)가 순서지에 없었지만 찬양했다. 마지막 날에는 강사 정연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뉴욕교협은 신년하례준비위원장 마바울 목사, 성령중대회 준비위원장 전희수 목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준비위원장 박마이를 목사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장학금은 15명에게 수여했다. 정순원 회장은 10명을 신청 받았으나 15명이 신청했기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했다 고 밝혔다. 광고는 이은수 목사(총무), 정대영 목사(부서기), 이창중 목사(서기)가, 축도는 허연행 목사, 장석진 목사, 송병기 목사가 각각 맡았다. (유원정 기자)


### 수단, 또 다른 '시리아' 될 수도 있다

(2면에서 계속)  
지난 1월 시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오마르 알 바사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카타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던 수단 내 상황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현재 수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터키가 각자 다른 이권을 노리고 내정에 개입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통 각 지역 내전에 개입해 외교적 노력을 쏟았던 UN, EU, 아프리카 연합, 미국, 러시아는 수단 사태에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적인 분쟁지역을 찾아가 당사자들을 중재하던 '경찰국가'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인근 지역 경쟁국만이 개입해있는 현 상황에서 수단 시위가 어떠한 사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이슬람 밀집 지역인

북수단에서 독립된 남수단 국민들에게 거는 비전이 있다. 남수단의 지식인들과 교회지도자들은 영어와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남수단은 이슬람의 남하를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랍어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 과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적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특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19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 제출서류 ◇**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①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② 입 학 시 험 : 2019년 8월 31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③ 개 강 부흥회 : 2019년 9월 3일(화)~5일(목) 저녁 8시
- ④ 수 업 기 간 : 2019년 9월 3일(화)~11월 29일(금)
- ⑤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718)637-1470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사악한 발의안 ACR 99에 온라인 서명 긴급

ACR 99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삶의 방식이 성경말씀에 거역된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가르침, 성경에 적힌 대로 동성애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는 상담, 책, 설교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문을 열어줄 발의안으로서 이 발의안이 법안된다면 크리스천과 성경에 대한 매우 심각한 여차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내용을 읽어보면 기독교에 가장 큰 위협은 이 발의안에 있는 황당스런 거짓증거와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의학면에서(APA)도 검증된 사실"이라고 발의하였지만, APA는 이미 반기독교 쪽으로 넘어가 편향된 자료를 내놓은 지 오래된 곳입니다. 그 외에도 동성애 팩트(fact)에 대한 올바른 자료를 가지고 언급하거나 질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ACR 99 발의안 문장에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WHEREAS, The stigma associated with being LGBT LGBTQ often created by groups in society, including therapists and religious groups, has caused disproportionately high rates of suicide, attempted suicide, depression, rejection, and isolation amongst LGBT LGBTQ and questioning individuals(LGBT 동성애자들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받게 되는 전환치료, 상담, 테라피 등을 통해서 오히려 자살율이 높아졌으며, 끊임없는 자살 시도, 우울증, 거절당함, 고립 등의 증상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발생비율을 초래하였으며,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종교적으로 받게 되는 전환 치료는 위험하다).

매우 길게 적혀진 이 발의안 전체가 위와 같은 비슷한 문장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매우 왜곡되었으며 팩트 체크가 안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LGBTQ 동성애 의원들로 뭉쳐진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원들이 제출한 ACR 99에는 현재까지 LGBTQ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00%가 찬성해서 통과되었기에, 다음 공청회에서 또다른 통과가 있기 전에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 발의안에 대한 반대 온라인 운동은 Tvnex.org 로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을 나누는 무리들-동성애자였다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탈동성자들의 ACR 99에 대한 강력한 반대론!

이 발의안에 적힌 내용들이 매우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강력히 알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탈동성애 운동을 이끌어가는 캔 윌리엄스(Ken Williams) 목사와 엘리자베스 원잉(Elizabeth Woning) 목사는 ACR 99 발의안 내용은 성경적 상담과 전환치료를 통해 LGBT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있었던 자살충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살충동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ACR 99는 동성애자들의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크리스천들을 향한 잘못된 인식을 일으키는 발의안인

특히 자살충동처럼 탈동성애에 대한 역사별인을 주장하면서 모든 시민들은 ACR에 적극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목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자살에서 구해줬고 분명한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 동성애자들의 자살율은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아래, 좌파 정치인들은 우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동성애자를 돌보는 탈동성자 같은 우리들의 노력을 오히려 공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탈동성애자이자 지금은 베델교회(Bethel Church)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캔 윌리엄스 목사는 "내가 17살 때 나의 동성애에 대한 끌림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기독교 책방에 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그날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책방을 나왔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카운슬러를 찾았다. 20대 초반에도 계속적인 투쟁(struggle)이었지만 상담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온전히 치유됐고 지금은 내 삶을 사랑한다. 나는 아

름다운 아내와 13년전 결혼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으리만큼 아름다운 자녀 4명을 함께 만들었다. 에반로(Evan Low) 하원의원의 제안, 해결책인 ACR-99는 나처럼 탈동성애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대표인 브래드 데이커스(Brad Dacus)는 ACR-99를 "원치 않는 동성애 매력 또는 성적체성으로 고민하는 개인을 위해 목회자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친동성애 메시지를 강요하기로 결정한 ACR 99는 미 전역과 시민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법안이 괜찮다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아주사 Pacific University에서 채플린으로

있는 Dr. Kevin Manoia는 ACR 99를 지지한다고 공청회에서 말한 것을 정리하면, "자신은 보수 크리스천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캘리포니아는 수많은 여러 각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동성애자들과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이다. 동성애자를 전환시키는 전환치료가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검증된 자료들은 없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법안이 동성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Dr. Kevin Manoia 이 발의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진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탈동성애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 외에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며 이들 역시 ACR 99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org에 가시면 상, 하로 나눠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온라인에 가서서 꼭 (30초도 안 걸리는)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tvnext.org@gmail.com



"ACR-99 Civil rights: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people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권리보" 발의안을 제출한 동성애자 Evan Low(중간 동양인) 과 LGBTQ 동성애에 의해 민주당 의원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 목사님의 지난주 6.25구국설교에서 한국이 6.25전쟁으로 공산화 위기에 처했을 때 부산에서 일어난 목회자들의 회개기도 이후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서울을 수복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토랜스에서 권 장로

**A:**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 하에 7개 보병 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 등 포함 11만명의 군대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하여 6.25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날이 주일이라 전방초소는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어 절반 이상의 병사들이 휴가, 외박,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침한 북한군은 포천과 의정부를 하루 만에 점령하고 3일 만에 서울도 함락되었습니다. 대전, 군산, 목포, 광주, 순천이 차례로 북한군에게 함락되고 8월 31일에는 미군과 국군이 대구 낙동강전선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젠 남한 면적의 10%가 남아 국가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고려신학교 교수인 이상규 목사의 "6.25동란 중 부산에서 있었던 회개집회"란 글을 참고한 것입니다.

피난민들이 모두 부산에 몰려들어 초만원에 이르렀고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의 교회들은 피난민 천막으로 가득 찼고 예배당, 교육관 사택도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도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때 한상동 목사가 시무하던 부산 초량교회에도 수많은 목사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부산 중앙교회에는

### 초량교회에서 통회자복 기도회...3일후 인천상륙작전 성공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전란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회개와 구국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국기도회는 국난에 처한 나라를 위한 기도회였고 회개와 각성을 위한 기도회로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기도회요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한 집회였습니다.

특히 한상동 목사가 시무하는 초량교회는 회개와 구국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경남 지사는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였는데 250명의 목회자들이 초량교회에 모여 회개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기도회였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그 당시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가 함께 피난민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강사는 박형룡, 김치선, 박윤선, 한상동 목사였으며 오종덕, 이학인 목사도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인물은 박윤선 목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집회가 개최된 때는 1950년 8월 말이었습니다. 집회는 일주일간 하도 새벽, 아침, 저녁집회로 모였고 설교자들은 대부분 6.25동란은 우리 민족과 교회가 범죄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라고 믿고 회개를 강조하며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신사참배의 죄와 해방후 한국교회의 대립과 분열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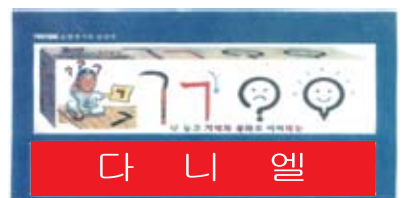
집회 때마다 통회와 회개,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후에 되는 날 새벽에는 모든 교역자들이 대부분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날 박윤선 목사도 공적으로 신사참배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회개되었고 통회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 1907년의 회개운동을 방불케 되었습니다. 한 주간 회개운동을 마치자 한 주간을 더 연장하여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중앙교회의 기도회 역시 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3일후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고 성공하여 결국은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로이드존스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 하고 앓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 내 교회 창립예배 초청

YouTube 가정교회

무명목사 TV설교, 폭발적 시청률 1위  
1,000번 이상 게시글 읽고 쓰고 그리고



## 드디어

\* 새로운 교회 창립

\* 새로운 설교 그림으로

\* 새로운 교인 (YouTube 예배)



### 내교회(My Church) 지역별 창립예배일정

- 1. OCLA 7월 2.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 조지아: 8월
- 3. 한국, 베트남, 하와이 중국 캐나다: 9월 10월

남상국 목사  
(설교담당)

장소: 갈보리 선교교회(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일시: 7월 27일(토요일) 5시

내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필라기독교방송 사장

담임목사(각지역): 알라바마, 뉴욕, 뉴저지, 워싱턴DC, 필라, 아틀란타, 달라스, 하와이, SF, LA, 한국, 베트남, 중국

내교회 창립 초청인: 김상범박사 남문기회장 이병만장로 한기형 목사 이서목사 남철우목사 김관진목사 김근수목사 독고원목사 김종대회장 김진모회장 이종렬총장 정가진총장 이상명총장 샘신목사 노섭회장 박영선의원 캐롤리뉴스타 오현근회장 이태섭회장 민기희회장 김태수장로 김성대목사 임덕순장로 김영찬목사 이영희회장 노을래장로 주수형회장 김영대회장 이호우회장 더글라스김 목사

연락처: 남상국목사 (949) 285-7242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페르시아인(PERSIANS)

정의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이란인으로 도 알려져 있다)은 첫 번째 언어에 의해, 두 번째는 거주지역에 의해 구분되는 종족이다. 파시어(Farsi)라는 페르시아어는 인도-이란계 언어로 이란의 국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류층 언어인 다리어(Dari)는 현대 페르시아인들의 방언이다. 기원전 1000년 무렵,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느슨한 관계를 가지던 페르시아 종족은 아케메네스 왕



조(Achaemenian dynasty) 하에서 정치적으로 보다 결합된 일체가 되었다. 그들의 통일은 곧 그 지역의 지배적인 종족으로 만들었다. 1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점차로 보다 복잡하고 강건해진 문화를 유지했다. 이것은 7세기 아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복사업을 벌이게 된 기반이 되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야 이란과 페르시아인들에게 대규모 변화가 생겼다. 페르시아인 대부분이 지금은 이란이나 근처 중동국가에 살고 있지만 세계 각처의 여러 나라에도 소규모 페르시아인 공동체를 볼 수 있다.

**삶의 모습**  
중동에서 페르시아인의 약 반수가 원시적인 인공 관개법

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농부들이다. 그들은 또 손으로 짠 물건, 양탄자, 도기와 같은 공예품을 만든다. 석유생산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많은 직업을 또 제공해준다. 사실, 해외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 중 많은 수가 이 분야에서 일한다.

전형적인 페르시아의 시골 가옥은 진흙으로 만든 단층짜리 주택이다. 나무기둥과 나지막한 지붕으로 만들어지며 창문은 없다. 빛은 문이나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 마을은 몇 개의 가구부터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로 이뤄진 것까지 다양하다. 각 마을의 크기는 주로 농지와 물의 이용에 크게 의존한다. 도시의 주택은 대개 구운 벽돌로 짓는데 기초를 높은 곳에 두어서 테라스가 있다.

도시의 페르시아인들은 5개의 정의된 사회계층으로 나뉜다. 가장 하층의 계층은 195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이에 소도시로 몰려든 예전의 시골 사람들이다. 이러한 비숙

련 노동자들은 대도시 변두리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 계층이 지역시장 장인들의 대다수를 형성한다. 계층 구조의 가장 위에는 부동산 투자가, 상인, 다른 상업 또는 산업 사업가들이 있다. 사제들은 "울라마(ulama)"라고 알려진 계층을 이룬다.

페르시아 문화의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단위는 핵가족이지만, 몇 개의 가족은 함께 합쳐 더 큰 단위를 이룬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이며, 며느리는 시가에서 생활한다. 이는 그들의 사회가 엄격하게 남자에 의해 지배됨을 나타낸다. 자손 계열은 아버지를 따라 이어지며 재산과 유산은 남자에게 물려지고, 가족과 정치적 통치권은 남자에게 속한다. 페르시아인 여자들은 공적으로 남편에게 예속돼 있지만, 사적으로는 자신들도 상당한 결정권을 갖는다. 남자들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보호자이며, 딸과 자매의 순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결혼은 아직도 중매혼이지만, 양 친척의 협의와 인정 후에만 가능하다. 사촌 사이의 결혼이 선호된다.

**신앙**  
아랍인들의 침략 이전에 페르시아인들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다. 이 종교는 선과 악의 힘 사이에 영원한 투쟁이 있다고 가르쳤다. 시아파 이슬람교가 16세기에 이란의 국교가 됐으며, 그 때 울라마(사제)들은 민족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페르시아인들은 이트나 아사리 계통의 시아파 무슬림이고, 이슬람의 율법과 교리를 지킴에 있어서 과격하다.

이슬람에는 5개의 필수적인 의무가 있다. (1)그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고 시인해야 한다. (2)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3)자선을 충분히 해야 한다. (4)이슬람 달력으로 9월, "라마단(람잔)" 기간에

는 금식을 해야 한다. (5)한 사람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향한 순례여행을 가도록 해야 한다. 무슬림은 또한 술, 돼지고기, 도박, 도둑질, 사기, 중상모욕,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슬람 세계는 복음을 들고 침투하기에 지극히 어렵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매우 거리낌 없이 대하며 심지어는 호전적이다. 그들을 진리로부터 막는 난관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파시어로 된 성경과 다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일어난 진전은 극히 적다. 오늘날 그들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는 단지 몇 개만이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적었다. 이슬람의 장애를 침투해서 접근제한국가에서 사역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 깨어져야 한다. 기도가 열쇠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미·중 무역갈등에 미 출판업계 '성경세' 부과 우려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의 인쇄 출판물에도 25%의 고관세를 물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내 출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성경을 인쇄해왔던 미국 기독교 출판사들이 한국을 대체 공급처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독교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지난달 미국 출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경세(Bible tax)'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고 CNN 등 현지 외신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제품 중에는 성경 등 독특한 종이에 인쇄하는 기술이 필요한 인쇄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인 허퍼콜린스에 따르면 성경은 일반 책의 10배에 달하는 80만개의 단어를 담아야 한다. 이 때문에 매우 얇은 종이에 인쇄해야 한다는 게 출판사 측 설명이다. 얇은 종이에 많은 단어를 인쇄하는 건 과정이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특수 제작된 기계로 인쇄해야 한다. 이 같은 인쇄 기술을 보유한 중국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성경 중 4분의 3을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NPD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성경책은 810만권이 다.

허퍼콜린스 마크 윈월드 최고경영자(CEO)는 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관세가 성경 출판에 미칠 잠재적이며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종교단체에 '성경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5%의 관세로 인쇄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기독교 서점과 시장은 물론 교회나 비영리 단체, 종교 기관들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성경 부족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한 출판기술이 미국의 성경대란을 막아줄 대안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보급 물량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성경책 600만권을 제작해 해외에 보급했다. 아프리카 국가 등에 제공되는 물량은 선교를 목적으로 주로 기증했다. 국내엔 10분의 1수준인 56만여권이 유통됐다.

출판업계에선 중국이나 한국처럼 브라질도 성경을 인쇄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엽지(薄葉紙)라 불리는 얇은 종이에 인쇄하면서도 비침이 없고 내구성도 강해야 하는 데다 제본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대신해 한국에 성경 보급을 요청한다면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물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중 갈등 상황에서 공연외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SNS에 '동성애는 죄' 퇴학생, 항소심서 승리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올렸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영국의 한 대학원생이 최근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셰필드대학교(University Sheffield)가 페이스북에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펠릭스 엔골(Felix Ngole)을 퇴학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의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자, 학교 측은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그를 퇴학시켰다.

그러나 엔골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에 관한 기독교인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갖고 있다며, 셰필드대학교가 대학원 수업을 마칠 수 없게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지난 2017년 고등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엔골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죄에 대한 종교적 관점의 표현이 차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엔골의 법적 대변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이번 판결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엔골은 "이번 일은 나와 가족들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해 우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다. 특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어 "셰필드대학교에서 받은 대우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4년 동안의 삶을 빼앗긴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자유를 위한 오늘의 중요한 판결로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 '독립운동 요람' 명동교회, 중당국 방침로 봉쇄위기에

1909년 중국 북간도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 교회이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으며 시인 윤동주의 외삼촌인 김약연(1868-1942) 목사가 사무한 명동교회와 건물 붕괴 우려로 폐쇄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문익환 문동환 삼부자(父子) 목사를 배출한 명동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한신대의 분향과도 같은 곳이다. 기장 교단은 즉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일보에 지난 7월 4일 중국 지린(吉林)성 옌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있는 룡정(龍井)의 윤동주 생가 입구의 명동교회를 찾았다고 15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1916년 당시 '간도 대동령'으로 불릴 정도로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

할을 했던 독립운동가 김 목사가 8칸짜리 기와 집을 올려 건축한 예배당이다. 100년 넘는 교회 건물 앞에 있던 십자가는 철거돼 사라졌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지붕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창살은 배불뚝이처럼 휘어져 튀어나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창문으로 들여다본 실내엔 텅 빈 곳에 십자가가 새겨진 강대상만이 남아 이곳이 교회임을 증명했다.

현지 안내원은 "장마철 비가 세고 있고 무너질까 무서워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진입을 막았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운동주 생가와 명동교회 관리를 명동촌 조선족 주민들이 하다가 공산당 측이 한족들로 안내원을 바꾼 이후부터 교회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면서 "건물 붕괴 우려로 지금은 교회당을 비우고 유물을 '운동주생평전시관'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거역의 예상을 들어 운동주 시인의 생가 주변을 확장해 '명동운동주 생가'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일제에 저항한 시인으로서의 운동주를 기억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명동교회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항일 투쟁 역사는 방치하거나 지우기 바쁘다. 이날도 20여명의 한족 공산당원들이 7월 중국 공산당 창립을 맞아 사상 강화 담사회를 열어 명동교회는 건너뛰고 운동주 시비부터 순례를 시작했다.

명동교회 예배당을 건축한 김약연 목사는 운동주 송몽규 문익환 등이 나온 명동학교 교장을 겸직했고, 캐나다 선교부가 세운 은진중학교와 명신여학교에서도 이사장을 역임했다. 장공 김재준 목사가 은진중 교목이었다. 강원용 서울 경동교회 원로목사와 한국전쟁 흥남 철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 등 피난민 9만여명을 살린 현문학 박사 역시 은진 출신이다. 명동교회 김 목사는 1919년 3월 13일 당시 북만주 일대 한인 다수가 참가한 3·13 룡정 만일시위의 실제적 지도자였다. 평양신학교 출신인 김 목사는 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일본이 서둘러 침략하는 걸 보니 서둘러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42년엔 "나의 행동이 바로 나의 유언"이란 말을 남기고 룡정 자택에서 별세했다.

#### "51구역 쳐들어가지" 제안에 79만명 동참

미국 네바다주 소재 비밀 군사기지인 '51구역'에 쳐들어가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51구역은 미 공군의 신무기 시험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외계인과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포획돼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인터넷 이용자 대다수가 이 엉뚱한 이벤트를 장난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괴짜들이 진짜로 기지에 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51구역을 공격한다. 그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Storm Area 51, They Can't Stop All of Us)"는 제목의 이벤트 페이지가 개설됐다. 오는 9월 20일 오전 3-6시(이하 현지시간) 사이에 네바다주 미 공군 시설인 51구역 앞에 모여 다함께 쳐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페이지는 순식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14일 오전 기준으로 무려 79만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관심 있음'에 응답한 사람도 70만명이나 됐다.

이벤트 페이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미뤄, 진지하게 51구역 공격을 계획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개설자는 "관광 명소인 51구역 외계인 센터에서 모두 만나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가 나루토 달리기로 된다면 총알보다 빠를

수 있다. 외계인을 보러 가자"고 적었다. '나루토 달리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달리기 자세다.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양팔을 뒤로 젖힌 채 달리는 자세지만 현실에서는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통상적 자세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51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비밀 시설이다. 고고도 정찰기인 U-2와 SR-71, 스텔스 전투기 F-117 등 미군의 최첨단 신무기가 이곳에서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지 주변의 경계가 매우 삼엄한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기가 자주 출몰하면서 이곳에서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바탕으로 '인디펜던스데이' 등 SF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미 공군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라 맥앤드루스 미 공군 대변인은 51구역 진입 시도가 실제로 이뤄지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WP의 문외에 보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맥앤드루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51구역은 미 공군의 야외 훈련장이다. 누구든 미군 훈련장에 접근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미 공군은 국가와 정부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라는 보낸 것이다.

위원장의 방미가 올해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P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북·미 정상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은 큰 성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판문점 회동 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은 판문점 회동은 도박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박이) 딱혀들었다"고 응수하며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오늘 역사에 남을 일을 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DMZ 방문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며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 북한 카운터파트와 일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사항 이행 작업이 이날로써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 캐리 램 시뒀 의사에도 중국정부가 거부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홍콩 도심에서 시민 10만여명이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램 장관은 사태 수습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중국정부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시민 11만5000명(추측 추산, 경찰 추산 2만8000명)은 14일 오후 홍콩 사틴 지역 사틴운동장에서 출발해 사틴버스터미널까지 행진했다. 일부 시민들은 '악법 철폐' 등 문구를 새긴 대형 플래카드를 들었다. 미국 성조기와 영국 국기, 영국 통치시기에 쓰이던 홍콩기도 눈에 띄었다.

시위는 한동안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오후 5시가 넘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77. 장세운(1895-1985)

장세운은 1895년 10월 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연희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했다. 시카고대학에서 공부하고 1924년 5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본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 시카고 한인교회 전도사

1919년 시카고에 한인 기도회가 시작됐다. 장세운은 1923년에 시카고 남쪽의 유학생 기도회와 북쪽의 한인 이민자 기도회 등 두 기도회가 있었다. 그는 10월 17일에 북쪽 한인 이민자 기도회를 위하여 서백할, 강영소, 강정근, 최흥원, 강세훈, 이명우, 김형린, 박리근, 박장순, 김승제, 김경, 염광섭이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교회 설립을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111달러를 헌금하였다.

해를 넘겨 1924년 7월 23일 김경 등 대표들이 미국인 선교 총회 회장이자 제1회 신학교 교장이었던 호겔트 박사를 만나 오는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되 목사의 사례비는 선교부가 책정하기로 하였다. 1924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서부 청년회 강당에서 교회 설립 예식이 있었고, 예배 후 행정부와 이사부를 조직했다. 장세운은 영광스럽고 더불어 행정부 내의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장세운의 전도사직은 1928년 말까지 지냈으니 3년 6개월간이었다. 1925년 9월 26일에 북미유학생회가 발행한 '우라카' 제1호 잡지에 장세운이 쓴 '과학의 일우에서 참오한 종교의 일면'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본 잡지의 편집장이자 자연과학부 기자였다.

####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

미국 감리교 시카고 남부 지방 갈리사 에드워드 슈츠 목사는 1927년 12월 18일에 한인들과 함께 내지 선교부 산하의 개척교회로서 시카고 한인감리교회를 조직했고, 이듬해 웨스트 옥데일 820번지의 2층의 아파트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다. 1928년 말 한승곤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전도사였던 장세운이 본 교회 목사로 피선되었다. 그가 유학생 총회 총회장이자 시카고 사회에 다년간 거주한 자였으므로 일반 교우들이 많이 기대하였고 환영했고, 시카고 기독교 청년회 회장 배동선은 유학생회에서 크게 공헌한 장세운이 목사가 된 기회로 대대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해 12월 말에 독감이 성행한 가운데 한인교회는 신년을 맞았다. 겨울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위스콘신 대학의 이준구 등 10여 명이 본 교회의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정월 2일에 상황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상임집사 강영대, 서북대학의 황에스더, 수리학을 공부한 김익수가 있었다. 시카고를 떠난 자로는 장태환이 학교 입학할 모색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했고, 오천석은 서북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으로 떠났다. 교회 이사인 김 경의 부인이 맹장염으로 웨스트사이드 병원에 응급 수술을 받았다.

2월에는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을 졸업한 김명선이 서북대학에서 그리고 한성군 목사의 아들 한세광이 시카고 루이스 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왔으니 교회 빈자리가 채워졌다. 과학연구회 제1회 강연이 본 교회당에서 있었는데 아모리공업학교의 김성호는 대두의 화학적 성분과 그 응용에서 공의 용도가 광대함을 표시하였고, 샌트럴 대학생 박정욱은 '화학과 문명'이란 제목으로 의미 깊은 강연을 하였다. 3월에는 국민회와 교민당과 동지회 등 세 정치단체가 삼일절 기념식을 가졌고, 그달 31일의 부활절에 캐나다 내한 의료선교사였던 스



장세운 박사 (1926년)

코필드 박사가 설교하였는데 교인들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그의 길이 바빠서 섭섭히 작별하였다.

4월에는 평양 출신의 김인준 선생이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원에 입학했다. 박인덕이 캐나다에서 뉴욕으로 돌아간 길에 한인교회에서 설교하였다. 고물상을 경영하던 양재형의 미국 부인이 별세하는 바람에 막내딸도 불행히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다섯 자녀는 당분간 고아원으로 갔다. 5월에는 어머니날을 맞아 '시카고 부인회'가 한인교회당에서 만찬회를 열고 부인 문제와 소년 문제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시카고 고려학회가 한인 예배당에서 정일형과 이용영 등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이화학당에서 가르치던 메리 R. 힐맨과 와렌 A. 칸들리, 공주 영명여학교 교장 아다 E. 맥키 등 세 여자 선교사가 시카고를 방문하여 27일 저녁 시내 워싱턴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나누었다.

6월 6일 한인 예배당에서 있었던 시카고 고려학생회 주최 웅변대회에 6명이 참석했고, 일반 투표에서 루이스 학원에 재학 중인 김호철이 1등을 했다. 한승곤이 과채상을 개업하였고, 나성에서 최근 이주한 이옥성이 과채상의 마춘봉과 동업하였다. 미조리주 대학의 길진수가 시카고 무디 성경학원으로 전학했다. 13일부터 18일까지 본 교회에서 북미 학생회 중서부 지방회가 시카고 대회를 개최했고, 18개 대학에서 온 50여 명이 모여 경제문제와 농촌 사회문제를 토의하고 학술 강연도 있었다.

### 1928년말 시카고한인교회 목사로 1년 재직... 이사장으로 지원 1942년 가주로 이주, 몬트리얼 국방대학원에 한국어교수 역임

교인이자 서북대학 상과생 한순교가 동 대학의 중국인 왕쌍풍과 동업한 원동무역사가 문을 열었다. 하회옥과 홍영태가 동업하여 세탁소를 개업했는데 본 세탁소는 시카고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탁업 조합에 가입한 최초 동양인이 되었으니 시카고 세탁소 사업의 원조가 된다. 서울 중앙기독교 청년회 총무 구자옥이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이곳 청년회에서 한국 농촌 구제 사업을 설명하였다.

시카고 건스 음악학교를 졸업한 현 재명이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초빙되었던 7월, 시카고대학 부속 중학생 김성봉이 정신 이상증이 생겨 형인 충남 재산가로 저명한 김성준이 시카고를 방문했고, 동생을 데리고 귀국하던 길에 한인교회에 30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교회는 종교사업뿐 아니라 시카고 한인회관의 직무까지 겸행함을 보고 매우 감축하였습니다. 일반 동포가 합력하여 앞으로 더욱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라고 치하였다.

10년 전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 양 일태가 득남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을 유학 보낸 후 삼일운동에 아들이 일본의 약행에 순직한 후 슬픈 세월을 보내다가 작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주일학교 대회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건너와서 사랑하고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나 득남의 경사를 보았다. 본 교회 이사 이병두도 득남했다. 예반스톤 서북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윤성덕이 이화학당 음악교수로 떠났는데 유학 기간에 그의 언니 윤심덕의 현해탄 투신자살 소식과 부친의 부음에도 잘 견뎌낸 결과였다.

하와이에서 유학하던 임귀선이 서북대학교로 전학하였던 8월, 링컨 공원에서 교회 피크닉이 있었다. 이제득이 수월 전에 도미하여 유다주 및 벨에서 일하고 가을 개학 시기에 맞춰 시카고로 왔고, 서북대학에서 교육학을 졸업한 고재완은 뉴욕 폴립비아 대학으로 전학했고, 북가주 오글랜드의 간호부 김수산아가 차를 타고 시카고로 왔고, 상항에 다닌 거주하던 황보정걸이 시카고로 와서 사업을 모색하였다.

9월, "미시간 호수를 거쳐 오는 가을바람이 슬슬 불어오며 누른빛을 물들이니 늦가을의 앞마당을 덮어 놓았는데 시카고로 와서 한여름 동안을 지내던 우리 학우 제군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때를 이용하여 고려학회의 주최로 중서부 각 대학의 웅변회와 돌아가는 학우들의 송별회를 그날 하오 8시 반부터 한인 예배당에서 개최하였다."

학우회가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는데 강태모의 환영사에 이어 김재성, 김은석 그리고 이재목의 답사가 있는 후 포도와 과자 등으로 다과회가 있었다. 이날 장기영의 이주로 강태모가 서기로 피선되었다. 11월 감사절 저녁에 한인교회는 40여 명의 교우가 만찬회를 열었다. 이날 새 이사부 장정을 통과하고 교회 목사나 담임 교역자를 매해 연말에 일반 투표로 선정기로 했다. 신입 이사 9인 중에 장세운은 빠졌다.

1929년 12월 15일에 장세운이 본 교회 이사회에서 목사직을 사면하였다. 이로써 그의 목회는 만 1년이 된다. 그의 후임으로 무디 성경학원 유학생 김인준 목사가 내정됐다.

#### 전도부원과 이사

1931년 2월 염광섭이 담임 교역자로 선정되면서 교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 때 장세운이 전도부원과 이사부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미국 감리교회가 옥데일 예비뉴 건물 14,000달러로 구매하고 한인교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어 수리비 700달러를 모금하기 위하여 '원래 교우가 소수인 중 과반이 학생으로 재정 능력의 심히 잔핍하여 은혜로운 마를 불가불 창게 되었습니다. 잊지 마실 것은 전 무후무할 이것이 한 번이옵시다... 다소간 동정해 주시기를 깊이 믿고 바라나이다'라고 신한민보에 게재할 때 그의 이름도 있었다. 그해 7월에 장세운은 이사로 재선되었다.

시카고 서북대학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 신학교에서 연구하던 갈홍기 목사가 1931년 7월 19일에 취임식이 있었다. 장세운은 이 취임식에서 사회를 담당했다. 이듬해 2월에 전경무가 담임 전도사로 취임했을 때 5, 60명이 모인 가운데 이사장 장세운이 "가슴이 터지는" 송별사와 환영사를 하였다. 1934년 2월 조승학이 신임목사로 취임하였고, 그달 11일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 이사장 장세운의 사회로 교인대회를 개최하였다. 1935년 조승학 목사의 사임으로 장세운 등으로 4인 전도부를 조직하고 목사 청빙 때까지 교회 사무를 담당했다. 그해 7월에 장세운은 8명과 함께 신임 이사로 선정되었다.

이은택 목사가 시무하던 1942년 정세운은 시카고 링컨 예비뉴 2152번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했는데 그해 재미 한족연합회 집행부의 서기로 청빙 받아 약 20년간 재류하던 시카고를 떠나 그해 6월에 미국 가주로 이주했다. 1960년경 북가주 몬트리얼의 미국 국방언어연수원에서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후 1985년 2월 12일에 향년 90세로 영면했다.

damien,sohn@gmail.com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 광운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무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2-999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중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성동 137 번지	<b>시은교회</b>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동로 17길 29(잠실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ichong.org	<b>안암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교회</b>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 리더십 코멘터리 (92)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순종하고 변혁하는 목회리더십

목회리더십의 바탕은 신뢰

목회리더십은 군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이다. 그 터전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목자로 삼으면서 직접 마련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고찰해 볼 때 목자의 임무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임을 확증한다. 불신의 시대에 리더십은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런 신뢰는 직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다. 목회리더십은 고된 직무나 타고난 재능 또는 신학교육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면 교회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목회리더는 인간적으로

종이라고 부른다. 말씀의 종이 많은 임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의 종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은 목자적 보살핌이다. 말씀의 종과 그의 아내는 자유를 찾으러 오는 사람을 상담하고 안내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간구해야 한다.

목회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리더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리더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진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 리더는 상대에게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리더다. 목회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

타내기 위해서는 관계형성을 통해 변혁을 해야 한다. 목회리더가 리더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향력 있는 리더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타이틀이 주어지면 리더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와 담임목사가 된다면 담임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받는 기간 동안 목회자가 관계형성을 잘해서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 목회리더십을 위한 몇 가지 코멘터리를 제안한다.

①문제해결 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방법을 성경 말씀에서 찾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운 길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의 길이를 늘려야 하는 것이 목회리더가 취할 마땅한 도리이다.

②준비하는 리더가 되라: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리더가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렇게 달라진 리더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모습이다. 사람들은 그런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③사역전문가로 거듭나라: 목회리더는 성경과 설교와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목회리더는 사역전문가로서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고도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목회리더는 일상의 삶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표명할 수

### 성경에서 문제해결방법 찾으며 준비된 리더 돼야 장점중심 사역하는 사역전문가로 평생 연구 계속

겸손한 성품이어야 하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통제하거나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섬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목회리더는 말씀의 종

담임목사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직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다른 제자들을 부리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려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마20:25-28). 목회리더십은 섬김을 뜻하기 때문에 목회리더를 말씀의

기실현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삶의 목적이 실현되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영향력 있고 거룩한 위치에는 자기 힘만으로는 오를 수 없다. 모든 주도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영광과 영향력이 있는 위치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리더가 그 자리에 오르면 권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된다. 이런 리더가 속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머무르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된다.

목회리더십을 위한 코멘터리

시대에 적합한 목회리더십을 행하려면 시대에 직면한 도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기고,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타락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목회리더가 되려면 도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영향력 있는 목회리더십을 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지닌 사람이다.

④죽을 때까지 연구하라: 전문가가 되어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생토록 연구하는 목회리더만이 혼란스런 시대를 자신감 있게 헤쳐 나갈 수 있다.

⑤장점 중심으로 사역하라: 바이블 리더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신들의 장점과 지식, 영적경험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순종, 모세의 장점은 리더로서 고립과 고독에 익숙함이다. 영향력 있는 목회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며 이를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회리더들은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성도들과 소통해서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한다. 예수께서도 5천명을 먹이셨지만 12명의 소그룹을 세우신 것은 소통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목회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명품인생

얼마 전 교회의 형제님들이 우르르 함께 1박2일 낚시를 다녀왔다. 이를 본 자매님들도 질세라 ‘우리도 하루 어디 다녀와야 하는거 아녜요?’ 목소리들이 높다. 가족끼리 휴가들을 떠나지만 이렇게 또 형제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진솔하게 가슴의 말을 나누고 함께 낚시하고... 하는 이런 시간은 분명 우리의 메마른 삶에 활력소가 되며 그야말로 양과겸질을 벗기듯 우리의 두터운 관계들을 한 꺼풀 벗겨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렇다. 우리에게 이 여름은 가족 간에 행복한 어울림의 시간을 갖는 휴가철이 될 뿐 아니라, 그 어울림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더 진한 관계들이 무르익어가는 귀한 휴가철이 되면 좋겠다.

“명품 인생이 되라”는 소책자를 단숨에 읽었다.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 명품은 어떻게 명품이 됐을까? 그렇다. 명품은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가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명품이다. 그러나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명품인생은 뭘까?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명품인생을 살려면 분명 다르게 살아야 하리라.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다가도 금세 자기 생각과 습관들이 견고한 진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진리가 진리 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평상시에 내가 쓰는 말과 삶의 습관들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쓰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나도 모르게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자처하고 사는지도 모른다.

내 삶속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그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 성공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최선을 다 하였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 이라면 멋진 명품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깥사람들의 평가에도 목을 매지 않고 그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명품인생이 되고 싶다.

소책자 안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미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미치셔야지 판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말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해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일에 미치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꼭 박힌다.

그렇다. 미칠 일에 미치서 기뻐해야 할 때 진짜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픈지를 알고 사랑해야 할 때 아낌없이 사랑하고 분노해야 할 때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삶이면 명품인생이 되기에 충분하리라. 그래서 당당한 사람, 멋진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명품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이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b>뉴욕망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운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세례기도: 오전 10:00 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 265-2584, www.fkc.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중풍), (917) 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4</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 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회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분 청년예배 오후 3:15(20분)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세례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목회서신

지혜로운 인생 건축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건축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 건축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인생 건축에 실패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 건축의 성공과 실패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의 광풍이 불거나 고난의 거센 비바람이 닥쳐 올 때에는 그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자기 인생 건축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건축을 하

지 못하여서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건축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인생건축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 살아 자기 인생을 건축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집을 반석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서 인생을 건축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한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이래로 남을 저주하거나 저주의 기도를 하는 악한 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래전 이란의 회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는 전 세계 회교 신도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원수인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죽도록 저주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영적으로 저주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려 하였지만 그는 먼저 죽어 한숨의 휴이 되었고 그 후 레이건 대통령은 더 오래 살다가 소천을 하였습니다. 악한 저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는 무너지는 인생을 건축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인간의 재주를 따르거나 인생의 쉬운 길을 따라 세속적 방법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 고난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가정에도 고난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고난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도 각양각색의 관의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지식과 지성과 과학과 문명의 넘치는 홍수 속에 살면서도 고난스럽고 힘들고 불행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인생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인생건축자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 살면 고난의 가시밭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는 자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십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의 길로 가라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복음찬송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 노랫말이 무겁게 들려지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노래는 인생을 살아본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에 지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요 가장 지혜로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노래 말입니다. 저는 오랜 이민 교회를 섬겨 오면서 목사인 제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축복된 현상들을 경험해왔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멀리 할 때 경험되는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말씀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존중하여 가고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건축이요 나아가 목회건축임을 절실히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나면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롬.



미주예성주최 남서부지방회 2019 목회자 가족수양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미주예성서남지방회 2019목회자가족수양회

미주예성(예수교미주성결교회 약칭) 서남지방회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엘리트유황

온천&수양관에서 2019 목회자 가족수양회를 가졌다. 30여명의 지방회에 소속된 목회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양회는 뉴저지

섬기는교회 박순탁 목사를 주강사로 예배와 찬양, 세미나 및 온천을 통해 회복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주강사 박순탁 목사는 지금까지 이민목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을 전해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한편, 이날 수양회에 참석한 임인애 목사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수양회였다. 특히, 예배의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임재와 귀한 생명의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한 영육 간에 기쁘고 행복한 그야말로 회복의 시간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양홍규 목사 (714)852-8485 (기사제공: 미주예성서남지방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입학설명회에서 변명혜 교수가 학교소개를 하고 있다

과목의 40%이상 통역 제공...

APU 2019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가 8일 오후 6시 본교 LA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본교 코리안 석사 프로그램 디렉터 변명혜 박사가 학교소개를 했다. 변 박사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는 예수님 중심, 학문중심, 공동체중심, 섬김 4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다"며 "1899년 설립

된 본교는 캘리포니아 7개 지역에 본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500여명의 학생이 학업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학부는 1983년에 설립됐으며 초교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본교의 선교사명은 예수님 중심 성경권위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에 사역할 수 있게 하며 실제적 사역위해 준비

시키고 학생들의 영적 개인적 소명적 발달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APU의 특징은 성경적 파운데이션이 강하며 일반학문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본교 코리언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중언어로 수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과목의 40%이상은 통역이 제공된다. 이 과목들의 경우 유학생의 경우 통역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며 1.5세 학생들의 경우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교 한인총동문회장 승광철 목사와 졸업생 박석영 전도사, 그리고 재학생인 고정민 전도사가 추천의 말을 했으며 학생회 회장 구자경 전도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조병제 목사(볼티모어 베델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김넷 주회 그림 1:1 전도양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살롱지역, 그림 1:1 전도양육 세미나

지난 7월 8일부터 사흘간 김넷(상임대표 최일식 목사) 주회로 열린 그림 1:1 전도양육 세미나가 본부장 전기현 장로의 아시아라이브러리 1층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 송상철 목사(애틀랜타 새한장로교회)는 살롱장로교회 출신 최문희 집사를 첫 간증자로 세워 참석자들에게 친근감과 도전을 줬다. 1과 하나님의 창조의 오리지

널 디자인 곧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축복을 인류의 타락으로 잃어버리게 됐으나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 받아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축복으로 되돌려지게 된 것을 강의했다. 12과까지의 과정은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사는 곧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전도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내용의 강의를 계속했다. 강사 송상철 목사는 12과 과

정의 강의를 주로 전담하였으나 5과와 6과는 이현석 목사와 정지호 목사가 각각 강의함으로 동역의 정신도 심분 발휘했다. 참석자 김바울 선교사는 80의 고령임과 암 투병으로 피곤해진 육신을 다시금 되잡아 은퇴가 아니라 새롭게 회개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해 러시아 선교지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전도하며 전도자로, 양육자로 세우겠다고 결심을 밝혀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편 14일 살롱장로교회는 이번 세미나 참석한 50여명의 기도 후원을 받으며 제 1회 모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첫모임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계획과 일주일동안 아는 지인들에게라도 20회의 전도연습 기회를 갖도록 격려를 받고 12과 훈련을 받도록 다짐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이승만 정신과 기독교 주제 세미나에 참석한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승만 정신과 기독교’ 주제 세미나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강사 추부길 박사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 박사는 '이승만 건국정신 재조명의 달'을 주제로 지난 7월 13일 LA말씀새로운교회에서 와이타임스 대표 추부길 박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자문위원)를 강사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추 대표는 역사적 접근에서 개혁세력이었던 트리플 애국세력인 김구(교회를 파출소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 김규식(나라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자), 이승만(나라를 만세반석 위에 세우자)는 기독교 신앙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윤영 의원(목사)의 기도로 의회(속기록 1호)가 시작됐고, 정, 부통령 취임선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게 한 이승만 개혁정신은 기독교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기독교회는 성경적으로 보수인 것을 강

조했다. 보수는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날마다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고, 진보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추종하는 것으로 전통을 무시하고 인간 존중성도 없고 기존 법을 불사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인간의 존엄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승만의 제한기독교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 문명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산 사회주의사상인 '국가가 개인을 다 책임진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로 우파가 아닌 좌파정신을 따른다는 정책기준은 좌파의 위험한 기초이고 반이승만 정신인 것을 강조 비평했다. 그는 도입부에서 이승만 박사는 한국을 예수교국으로 만드는 전략적 정치를 해 오늘의 발전된 자유 민주국가를 이루게 한 지도자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인 김희창 박사는 추 대표의 강연에 대해 평론했다. 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지회장 최희량 목사 인도로 탈북자선교회 김영구 목사의 기도, 월드웨이 미국지부장 강태광 목사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설교와 차기학 부회장, 이데이비트 목사의 기도와 고남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고, 남가주유국동교회(최만규 회장)가 준비한 식사를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우리의 친구 무슬림(우친무) 훈련에서 하순열 선교사가 강의하고 있다

전세계적 증가세 무슬림에 복음일

우친무 훈련 실시, 강사 하순열 선교사

'우리의 친구 무슬림'(우친무) 훈련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에서 Biblical Christian Mission(대표 김신숙 선교사) 주최로 열

렸다. 15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린 첫날 강의는 하순열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이번 훈련에 대한 개요와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하순열 선교사는 "매스컴으로 접해진 이슬람과 무슬림의 이미지는 큰 벽으로 그려질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됐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이웃으로 다가온 무슬림을 자연스럽게 섬기며 그들이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 선교사는 "미국인구가 3억 3천만명정도이며 미국내 무슬림이 증가세에 있다. 전세계 인구가 70억명 정도인데 그중 무슬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0-20년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 아랍사람이 상당히 많은 비아랍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비아랍권 지역에 아랍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신 2019 가을학기 학생모집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19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입학시험은 8월 31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한편 개강부흥회는 9월 3일(화)부터 5일(목) 저녁 8시에 있다.

▲문의: (718)463-7163, 637-1470

##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 노회 소속 매프리스필 장로교회가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교단가입 혹은 가능하고 미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담임 또는 부교역자로 이민목회 경력 5년 이상으로 1965년 이후 출생으로 이중언어 사역이 가능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노회소속 증명서, 사모신앙고백서, 목회철학서, 최근 설교동영상 1편(링크주소), 추천인 2명의 봉인추천서. 서류마감은 8월 31일.

▲문의: atmc1348@gmail.com

## 미드웨스트대학교 2019 가을학기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가 유학생이나 온라인, 교환교수/연구원, 인턴십 학생을 모집한다. 학위과정 프로그램은 △학사: 경영학, 음악, 신학/교육 △석사: 상담학, 교육학(TESOL), 음악, 영어교육, 신학, 경영학 △박사: 목회학(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선교학, 목회신학), 음악, 리더십(Ph.D)이 있으며 ESL 과정도 있다. 학위취득방법은 온 캠퍼스(I-20발행), 온라인, 소집강의와 온라인 병행이 있으며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 또 J-1비자가 가능하며 미국 비행기조종사 과정(국제 항공 아카데미)도 오픈돼 있다. 본교는 미주주 세인트루이스에, 본교는 워싱턴DC와 한국 서울에 캠퍼스가 있다. 이메일 usa@midwest.edu

▲문의: (636)327-4645, (571)730-4750

## 제 2회 현대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 성경클리닉

제 2회 현대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성경적) 성경클리닉이 8월 8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뉴저지장로교회(김도완 목사), 9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뉴욕그레잇네교회(양민석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는 양성구 박사(조지프스대학교 설교학 교수). 주관은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가 하며 참가비는 75달러. 7월 31일까지 등록하면 60달러.

▲문의: (718)213-8645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사도행전에서 찾아본 교회성장”

###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세미나 강사 이용걸 목사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의 저녁집회와 2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1면 기사 참조].

예년에는 대회를 마치고 다음 월요일 오전에 강사가 인도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올해는 강사 정연철 목사의 멘토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원로)가 13일 세미나를 인도하고 정연철 목사는 15일 조찬기도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프라미스교회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30분에 걸쳐 열린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본 교회성장”에 대해 자신의 목회경험과 아울러 강의를 진행했다.

이 목사는 먼저(1)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설교는 인사가 필요하다 ②설교자는 인사가 필요하다 ③설교는 영적 양식, 기도하라 ④설교는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⑤설교는 전달이 중요하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⑥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⑦설교는 종합예술, 원고를 써라 ⑧설교는 시대 방향을 예고해야 한다 ⑨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⑩강해 설교를 하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행2:37)는 ①교회는 소문이 좋아야 한다 ②교육에 대해 신경쓰라. 교역자를 써라 ③자체건물이 있어야 한다 ④지역봉사를 하라 ⑤선교하는 교회로 ⑥회복해야 한다.

3(행3:1)-새벽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된다.

4(행6:7)-말씀의 주도성, 말씀의 정복성, 강단에서 허튼 이야기 하지 말라.

5(행8:4-8)-전도하라

6(행11:22-26)-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를 보고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주님께 붙어있으라 착한 사람을 임직자로 세우라-①겸손 ②눈물목회 ③모든 참음 ④범사에 모범을 보이라

7(행14장)-심방목회

8(행16:4-5)-교회규례, 내규 필요(신본주의로)

9(행17:11-12)-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공부 하라

10(행18:8)-목사 가정이 모범이 돼야 한다.

이날 이용걸 목사의 강의에 이어 우장환 장로(필라델피아교회)가 전도에 대해 지역 복음화 훈련에 대해 강의하며 일상 생활에서 전도하는 실습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조찬기도회 및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과거 잊으면 자만해지고 꿈이 없다”

###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열린 할렐루야 2019 대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행사가 15일 오전 8시 조찬기도회 및 세미나로 열렸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서기 이창종 목사 사회로 한기술 목사(국가기도회분과)가 기도한 후 회장 정순원 목사가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성결한 삶’을 강조한 만큼 이러한 기운이 전미주와 세계를 향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 정연철 목사는 신명기 8장 1-2절을 봉독한 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단 하나에 달렸다”며 “과거를 잊으면 자만해지고 내일의 꿈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모세의 부탁인 ‘과거를 생각하라’ 시대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교회는 시대를 알려줘야 하고 살아갈 방향도 알려줘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목회 노하우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그저 내게 맡긴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 묵상하는 것”이라며 “나도 목회실패와 탈진, 회피 등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목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과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나와서 피눈물 나는 싸움이다.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면 죽도록 헌신한다”고 말했다.

정연철 목사는 또 “이단은 기성교회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니 이단으로 빠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 주제처럼 성결한 삶, 거룩한 목회자를 향해 나갈 때 평양대부흥과 미스바대성회의 역사가 뉴욕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예식 목사의 축도 후 박마이클 목사가 식사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미션 회원들과 뉴욕을 방문한 한국 시니어선교회장 이시형 장로가 함께 기념촬영 했다.

## 실버세대, ‘남은 자’ 로 선교하자!

### 뉴욕실버미션, 한국 시니어선교회장이시형 장로 초청만찬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이 지난 7월 15일 저녁 5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 시니어선교회장 이시형 장로 초청만찬을 가졌다.

전 유엔대사를 지낸 이시형 장로는 이날 뉴욕실버미션 회원들과 만남을 갖고 한국의 실버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욕실버미션 회장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는 “4-5대 신앙의 가정에서 평생 복음을 전해오신 이시형 장로님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첫 피아노 연주회를 하신 분이요, 자녀들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동감리교회 장로인 이시형 장로는 1967년 뉴욕(플러싱)에 처음 왔으며, 12년 정도 거주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미래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전했다.

이 장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인데 이제는 한평생이 아니라 두평생으로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만큼 장수하는데 이 은퇴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묻고 “평생 직업에서 습득한 최고의 전문성과 교회에 받은 영적훈련의 성숙한 인적자원으로 실버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로는 “한국의 복음화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고 근대화 과정은 우리가 했다”며 “70년 근대사 중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라며 한민족에게 주신 7가지 ①복음화 과정 ②사탄의 반격 ③20세기 초 한민족을 흡수심 ④한강변의 기적들 ⑤다문화 사회 ⑥초고령화 사회 ⑦독특한 DNA를 소개했다.

이 장로는 “현재 한국사회 전체적인 부조리는 교회의 잘못이 많으며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기독교정신이 바탕 돼 있지만 한국은 해방후 꺾질만 받아들인 민주주의로, 이제는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손해되면 악’이라는 개념이 팽배하고 정치적으로도 포퓰리즘(인기위주)만 있고 성숙의 구분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 장로는 “가치관의 몰락은 전 세계적인 추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남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인 크리스천, 특히 실버세대가 소망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형 장로는 16일에는 뉴저지실버미션과 만남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담임목사 위임예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담임목사 위임예식

하크네시아교회 전광성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예식이 7월 14일 오후 4시 본 교회 소속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 뉴욕시노회 주관으로 열렸다. 전광성 목사는 2014년 11월 퀸즈중앙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로 조건부 위임예배를 드린 바 있다.

전광성 목사는 답사를 통해 긴 감사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목사님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My People pray for me”라고 대답한 찰스 스피얼 전 목사의 말을 소개하며 “지난 5년 동안 기도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앞으로 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윤명호 목사(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공로)가 위임목사에게 권면했으며, 하크네시아교회의 전신인 퀸즈중앙장로교회를 개척한 안창의 목사와 김희복 목사(직전회기 뉴욕교협 총무)가 교회에 권면했다. 이어 노회 총무와 신현택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가 축사했으며, 전광성 목사의 답사와 축도가 이어졌다.

(정리:유원정 기자)

## 남혜경 작가 뉴욕 첫 전시회

지난 7월 10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맨해튼 Artifact 갤러리에서 남혜경 작가의 뉴욕 전시회가 열렸다.

남 작가는 필라델피아 포도원장로교회(김병일 목사)에서 흥피 관리와 찬양팀 멤버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 뉴욕전을 개최했다.

남혜경 작가는 대구 계명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백석대학원에서 기독교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동안 각종 공모전에 우수한 입상경력과 개인전, 초대전, 그룹전 등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왔다.

남 작가의 주된 작품 주제는

빛방울을 통해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붓을 사용, 캔버스라는 유리창을 통해 빛방울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작가의 빛줄기 시리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작품을 만들면서 여성의 섬세한 붓 터치로 빛방울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나무와 하늘을 다양한 모양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제공: 남혜경)

작품제목: Rain Down Righteousness



뉴욕목사회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강사 이종필 목사, 30-50대 목회전문가

### 뉴욕목사회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주최한 “킹덤처치 세우기” 세미나가 7월 9일과 10일 이틀간 뉴욕새힘교회에서 열렸다.

강사 이종필 목사는 서울 세상의빛교회 담임이며, 킹덤처치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첫날 강의에서 이종필 목사는 자신을 “30-50대 목회 전문가”라며 “교회의 중심부인 30-50대에게 맞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14년전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한국교회가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30-50대 중간세대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고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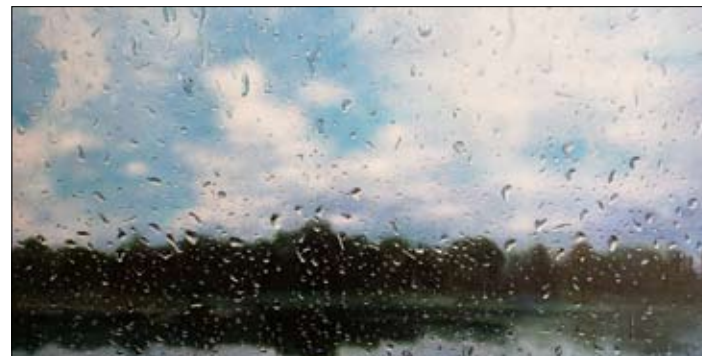
이종필 목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하나는 윤리적인 이슈로 교회내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젊은 층들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 목회자와 교회가 어쩔 수 없는 면

이 많다는 것. 다른 이유는 변증적 이슈로 60대 이상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고대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30-50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 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들에게 교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도전하며, 이들이 교회에 다시 소망을 갖고 복음에 헌신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킹덤처치 사역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필 목사는 “그들에게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임지를 갖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 지금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위치를 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적 문제가 발생하면 젊은 층들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 목회자와 교회가 어쩔 수 없는 면

(정리: 유원정 기자)





# 청소년 에이즈증가율 2,500%...비즈니스도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동성애예방교육 교계초청세미나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진유철 목사)는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예방교육 세미나를 10일 오전 10시30분 나 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실시했다.

강사로 동성애자, 에이즈환자 전문의 염안섭 원장(현 한국 수동연세요양원)이 초청됐으며 염 원장은 “동성애는 유전적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성애를 일으키는 염색체 등 유전자는 없으며 100% 후천적이며 학습으로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염 원장은 “한국의 경우 동성애 관련 스마트폰용 앱이 있으며 이 앱은 동성애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그들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동성애현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들이 한번 벌어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동성애 예방교육 교계지도자 초청세미나에서 염안섭 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이는 수익은 3만원에 불과하다. 그 3만원을 벌기위해 스스로 향문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은 2,50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남성의 신체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게 창조됐다. 남성의 향문을 통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면 몸 안에 있는 대변이 밀려나와 성행위를 막게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욕실에 비치된 샤워기 호수를 향문에 삽입하고 내장에 물을 채워 세척하는 방식을 5회 이상 반복해 내장을 깨끗하게 한 뒤 동성행위를 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샤워기호수를 들고 다닌다면 거의 100% 동성애자라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남자 간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관계를 갖는 순간 및 아동 성폭행과 연관돼 있으며, 시체성애자, 동물성애자, 기계성애자 등 비정상적인 성 중독으로 번지게 돼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성애자 중에는 1천명 이상과 성관계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동성간 성 중독”이라고 남성동성애의 실체를 밝혔다.

염 원장은 한국정부의 친동성애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은

국가관리 에이즈환자가 1만명, 관리 못하는 환자가 3만명”이라며 “미국의 경우 에이즈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은 환자들 사비로 충당되지만 한국은 이들은 에이즈 검사비용부터 치료비, 약값, 병원비, 간병인, 심지어 교통비와 식비, 노후보장 비용까지 국민세금으로 받으며 귀족 집단화되고 있다”며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조원을 돌파했고, 정부의 친동성애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에이즈 증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일깨웠다.

그는 “한국의 경우 성전환 수술비용은 1억원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여성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그들이 복용하는 여성호르몬제 비용의 100%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하지만 여성호르몬 주사는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염 원장은 “금지하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동성애를 막는 것”이라며 “동성애 치료는 전환치료이며 2년 정도 노력하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과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 방송출연정지를 당한바 있다”며 “동성애 실상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레인보우 리턴즈’ 방송을 하고 있다. 현재 17,000명 구독자가 있으며 이 방송이 많이 알려져 올바른 성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월드미션대학교 2019년도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에서는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학설명회는 LA 캠퍼스와 오렌지카운티 캠퍼스에서 각각 상담 세미나와 함께 열리게 된다. LA 캠퍼스는 25일(목) 오후 7시부터, 한국CISM연구소 부소장이현아 교수(사회복지학 박사)가 강사로 참석한 가운데 “자살 예방을 위한 위험신호 이해와 접근 방법”에 관한 강의와 입학설명회가, 오렌지카운티 캠퍼스에서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김경준 교수(임상심리학 박사)가 강사로 참석한 가운데 “ADHD의 이해와 진단”에 관한 강의와 입학설명회가 동시에 열린다.

▲문의: (213)388-1000

### 이필찬 교수 요한계시록 특강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는 이필찬 교수의 요한계시록 산책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특강을 본 교회 두란노 홀에서 실시한다. 일정은 19일(금)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이며 등록비는 30달러(토요일 중식 포함).

▲문의: (310)618-2222

### 미션스쿨 합창제

미션스쿨 합창제가 2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965-9191

### 2019 미션U 여선교회 선교학교

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여선교회가 주관하는 2019 미션U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아주사피사피대학(총장 폴 퍼거슨 박사)에서 ‘마가복음과 진보적 제자도’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문의: (323)422-1711

### 제1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콘서트

명곡오페라아카데미(대표 에스더진)가 주최하는 제1회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LA오페라 콘서트가 20일(토) 오후 5시 마가교회(채동선 전도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605-5810

### 밸리연합감리교회 7월 한밤의 음악회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는 7월 한밤의 음악회를 21일(주일) 오후 6시에 갖는다.

▲문의: (818)366-0089

###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부흥성회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강홍훈 목사) 부흥성회가 ‘나중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주제로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나경일 목사(인천주안장로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6일(금) 오후 7시30분, 27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문의: (619)223-9999

### 송정미 사모 찬양 콘서트

에스틴한인장로교회(이승태 목사) 12311 Natures Bend, Austin, TX)는 송정미 사모 찬양콘서트를 19일(금) 오후 8시 본당에서 갖는다.

▲문의: (512)454-1727

### 아름다운교회 조영석 목사 찬양집회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는 찬양사역자 조영석 목사 찬양집회를 19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문의: (626)810-3455

### 동성애 반대설교 금지법안 관련 세미나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 금지 법안에 대한 남가주 지역 교계 지도자 초청 세미나가 24일(수) 오전 1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 170 Bimini Pl, LA, CA 90004)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송정명, 진유철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는 TVNEXT 김태오목사, 새라김 사모.

▲문의: (213)384-5232, 675-6493



성석환 정재영 교수 초청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교회 마당에서 골목으로 골목으로 광장으로라는 주제로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 ‘교회마당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광장으로’ 성석환 정재영 교수 초청, 목회자멘토링세미나

공적교회연구소, 남가주동신교회, 선한청지기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가 ‘교회 마당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광장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9일 오전 10시 남가주동신교회 헤세드홀에서 개최됐다.

지역 교회의 목회자 및 리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성석환 교수(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교)가 주제 발표했다.

성석환 교수는 ‘후기 세속사회의 종교 담론과 교회의 공적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로 들어온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형태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의사소통 구조도 분산형 네트워크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의 신학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계 속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 사회와 괴리돼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는 도전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공공신학은 기존의 교회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상 가운데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그 자리를 시민사회 가운데에서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셔널 처치 역시 복음의 본질을 고민하는 가운데 신앙과 교회의 방향과 위치를 찾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의 신학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복음의 공공성과 현장성은 교회의 내일을 고민하는 미셔널처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는 한편 오히려 기존의 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 결과는 세대 간의 괴리, 중산층과 주류로서의 기독교, 가족주의에 매몰 등 현상이 나타났으며, 결국 탈교회와 교세하락

을 자초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공동체의 담론들과 마을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비록 기존의 교회가 사회변화와 요구들에 발맞추지는 못했지만,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시도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가운데 교회와 신앙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해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정재영 교수는 “1985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센서스의 종교별 조사에서 개신교의 신도수가 가장 높았지만 신뢰도는 낮았다”며 “낮은 신뢰도로 인해 가나안 성도가 등장했다. 가나안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교회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합석한 선생이 비슷한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교회에서 이미 사용된 de-churched Christians, 규모가 2백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가나안성도들의 교회 이탈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신앙의 일탈 차원이 아닌 주체적인 신앙의 욕구이자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경관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의지”라며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리더십, 신행 일치, 흠여지는 교회, 소통 방식의 설교 등은 오히려 더욱 진지한 신앙의 갈망으로부터 쏟아낸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가나안 성도들은 천편 일률적이거나 동질집단이 아닌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손길을 뻗어야 한다”며 “한국 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나아가 공동체성의 회복, 사회개혁참여 등을 통해 교회의 제도화를 극복하고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는 신앙의 장소,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에서 전출연자들이 연합으로 합창하고 있다

## 20년간 64,000 지구촌장애인에 도움

###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주최 제 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가 14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신영각 목사)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는 “2019년은 본 선교회가 설립된 지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올해는 아프리카 우간다와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남미 파라과이에 각각 한 컨테이너 분량의 휠체어를 보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세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콘서트는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 이사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합창단(지휘 원영진),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 배우은 자매, 남가주농아교회 수화찬양팀(지휘 권호순), SDN찬양팀(지휘 김명숙 전도사)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전출연자가 연합으로 합창한 뒤 유영기 목사(자문위원) 축도로 마쳤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지난 20년간 총 41차례에 걸쳐 14개국에 휠체어 12,326대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51,212점을 선적해 약 64,000명의 지구촌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2019 한여름성령집회에서 강사로 참여한 이찬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깨끗함을 받으라’ 주제

### 은혜한인교회 한여름성령집회, 강사 이찬용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2019 한여름 성령축제를 ‘깨끗함을 받으라(마8:3)’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찬

용 목사(부천성만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14일 오전 9시20분 예배시간

에 이찬용 목사는 ‘깨어있으라’(마24:42-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라고 질문하며 “노아시대와 지금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미쳐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2천년전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말하고 먹고 마시고 흥수가 날 때 깨닫지 못한 자들처럼 오늘날 그렇게 살거나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충성하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깨어있는 것은 성령충만한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사람에 대한 도리를 할 수 있는 자”라며 “하나님께 충성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자다.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충성은 작은 일에 잘하는 것이다. 남이 보지 않을 때 잘하는 것이다.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잘하고 끝까지 잘하는 것이다. 끝까지 순종하고 사는 자들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 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찬용 목사는 첫날 저녁집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마8:1-4), 둘째 날 새벽집회는 ‘참된 복이란?’(사1:1-6), 저녁집회는 ‘유다에 대하여’(창 29:31-15), 셋째 날 새벽집회는 ‘신앙생활 주의할 3가지’(막 10:13-16), 저녁집회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막 16:16-18), 주일오후집회는 ‘예수 결의 사람들’(마27:32-3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 “교육현장 기독교 건학이념 반영 힘들 것”

서울기독교자사고 신일·배재·이대부고 ‘지정 취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잇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에 기독교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국 6개 기

독교계 자사고 중 이화여고(교장 김해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만 살아 남았다.

김철경(서울 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교육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

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공감을 나누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잘 살피겠다’고 언급까지 했는데 국가 지도자와 교육 당국의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 전국 중보기도자들 복년 복음화 간구

22차 북한구원기도성회 1500명 참석

북한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전국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복년땅의 종교 자유와 복음화를 간구했다. 11일 경기도 화성 수원원효산수양관에서 개최된 ‘제22차 북한구원기도성회’에서 1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접하고 이상화와 신격화 체제가 종식돼 북녘에 예배의 자유가 도래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탈북민 출신 A목사는 “외부와 단절됐던 북한 사회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대량아사자가 발생하면서 30만명의 탈북자가 북한 땅을 떠나 외부세계를 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선교가 북한의 ‘뒷문’이고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사역이 ‘열문’이라면 중국을 통한 ‘뒷문’이 이때 열린 셈”이라며 “중국 접경지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을 통해 탈북민

의 80%가량이 복음을 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은 당신에게 헌신된 누군가에게 큰 소명을 주시고 구제 교육 선교를 통해 점진적 복음전파와 발전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선교방법을 쓰신다”면서 “하지만 북한 땅은 예외로 하신 하나님은 뒷문을 여시고 한꺼번에 30만명을 꺼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설명했다.

A목사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북한 땅을 지배하는 진짜 신은 돈이 됐다”면서 “오픈도어선교회가 18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선정한 북한에선 홀로코스트 못 지않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 침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음 통일이 돼 북한 땅

의 교회 그루터기와 남한의 아름다운 아름다나무가 연합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가 정치적으로 좋은 나쁘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도와 섬김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탈북민 출신 B목사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상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공허함이 크다 보니 그걸 채우기 위해 장마당에서 고가의 성경책을 사서 부적처럼 집에 보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목사는 “북한에 연고가 없는 크리스천이라도 북한의 한 가정을 입양하고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사역을 하길 제안한다”면서 “그렇게 섬기다면 고난의 시기 탈북민에게 문을 열어두고 쌀을 제한 없이 나눠줬던 접경지역 교회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도성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 예정합동 9월총회 임원선거 후보 ‘윤곽’

총회장에 김종준 목사...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단독 출마 예상

오는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개최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제104회 총회 임원 선거의 윤곽이 나왔다. 최근까지 전국 각 노회를 통해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12명의 후보가 출마표를 던졌다.

총회를 이끌어 갈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준(꽃동산교회) 목사가 무난하게 선출될 전망이다. 김 목사는 지난 9일 열린 동탄서노회 임시노회에서 총회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그는 104회기를 이끌어 갈 키워드로 ‘회복’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총회다운 총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총회를 만들어 거룩성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총회 차원의 회개 기도 운동을 펼치고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사부총회장엔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가 단독 후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경기남노회 임시노회에서 후보로 추대된 소 목사는 “예정합동이 장자 교단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그동안 이슬람 대책, 반동성애 운동, 종교인 과세 등 반기독교적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앞장서 대응해 왔다.

장로부총회장과 부서기, 부

회계 선거에서는 경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윤선율(안동 대흥교회) 임영식(아천제일교회) 장로, 부서기에는 김한성(서울 성산교회) 이종철(서울 두란노교회) 목사, 부회계에는 박석만(화성중앙교회) 임종환(인천 생명길교회) 장로가 각각 소속 노회에서 추천을 받았다. 부회목서기에는 정계규(사천교회) 목사가 단독으로 추천됐다.

부서기(정창수 산돌교회 목사) 부회목서기(박재신 양정교회 목사) 부회계(이영구 서현교회 장로) 등 현 부임원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임원으로 당선된다. 총회 임원후보 등록 기간은 15-19일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선관위는 오는 9월 초 전국 3개 지역에서 후보 정견발표회를 진행한다.

## 국내 31개 대형교회, 미래 선교위해 손잡아

KWMA, ‘미래선교 교회연대’ 첫 회의

국내 대표적 교회들이 미래 선교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선교사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고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미래선교 교회연대’(가칭)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교회연대엔 광림교회 금관교회 명성교회 분당우리교회 사랑의교회 새문안교회 새중앙교회 소망교회 수영로교회 안산동산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총현교회 등 31개 교회가 참여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미래 선교를 위해 중소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형교회들이 연합해서 섬기자는 취지로 모였다”며 “기들이 잡히면 중소교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31개 교회 선교담당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연대가 추진할 과제와 방향을 공유하는 등 준비모임 형태로 진행됐

다. 앞으로 개교회 선교 목사들은 두세 차례 준비모임을 더 갖고 의제를 조율한 뒤 각자 교회 제회를 설립하고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교회연대가 우선 과제로 꼽은 건 선교사공제회 설립이다. KWMA는 이미 공제회 설립을 위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향후 명성교회 분당우리교회 사랑의교회 새문안교회 새중앙교회 소망교회 수영로교회 안산동산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총현교회 등 31개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입법받아 다양한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복지기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찰공제회, 수산업협동조합(수협)처럼 선교사들을 위한 공제회가 설립되면 선교사들의 복지 개선은 물론 차세대 선교 동원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장영수 KWMA 미래선교개발센터장은 “공제회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회보장

제도로 ‘특수지역 근로자의 복지와 수입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존재한다”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복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연대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첫 사업으로 오는 10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의 재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월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청년 해외진출(창업) 지원 박람회도 개최한다. 박람회는 사업이나 스포츠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을 교회나 선교사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교회연대의 공동사업과 별도로 개교회가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검토한다. 여기에는 선교사의 유럽 진출과 국제협력에 위해 독일어 선교 연합지원센터를 구축하거나 전 세계 무슬림 난민들이 유입되는 말레이시아에 선교연합훈련원을 세우는 사업 등이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교회가 봉사단을 급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도 모색한다.

## “이주여성 존중하는 문화조성 힘써야”

인권 사각 결혼이주여성...교회 역할은?

“한국인 남편과 결혼 이주여성 간 관계가 나빠질 때 갈등 원인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 사건에서 남편이 경찰에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듯이요.”

경기도 오산 이주여성지원단체 관계자 A씨는 9일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실을 고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9년간 이 단체에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글교실과 컴퓨터 운영, 법률 지원 등을 펼친 목회자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상담사례를 보면 갈등상황에서 이주여성인 아내에게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는 남편들이 적지 않았다”며 “심지어 특정 신체 부위를 트집잡으며 폭언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려는 남편도 있었다”고 말했다.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음식을 만든다”며 남편이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은 지난 6일 페이스북 등 SNS로 확산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 두 살배기 아기가 울부짖는 가운데 발길질을 멈추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8일 남편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에도 빈번히 노출돼 있다. A씨는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남편이 모두 그런 건 아니나 일부의 경우 아내의 출신 국가를 무시하며 정서적 폭력을 가한다”며 “넌새가 고약하니 집에서 자국 음식을 절대 하지 말라거나 특이하면 ‘고향에 보내버린다’며 위협을 가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결혼 이주여성 대다수는 남편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비자연장 여부가 남편에게 달렸기 때문”이라며 “남편들의 편향된 인식과 구조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부터 결혼 이주여성

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은 “우리보다 약소국에서 왔으며 업신여기는 현 풍토를 바꾸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농어촌에 결혼 이주여성이 많은데 이들 역시 ‘주님 안에 한 지체’란 마음을 품고 지역 교회가 존중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회가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부부가 서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배우자 감사 운동’을 들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최광규 서울중국인교회 목사 역시 ‘존중의 문화’ 조성에 있어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현장에서 볼 때 제도 개선만으로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성숙해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에 이주민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교단 신학교에 다문화학을 설치하는 등 한국교회부터 다문화를 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는 올바른 교회정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장로교 정치를 보완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환종직이지만 목사나 장로보다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집사 직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차리회의 의사결정 존중, 이에 대한 대화라든 ‘평화적 철수’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분열 지양 등을 주문했다.

‘장로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를 주제로 발표한 손덕현 서울보은교회 목사는 “일부 목사

와 장로가 성경에 나온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란 역할 구분에 얽매어 우월감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섬김의 행위이다. 우리 모두 ‘섬김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신기 신총장서교회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 아래 각종 단체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교단 내 일부 임의단체 및 사조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짚었다. 그

는 단체활동의 유익을 위해 반드시 치리회의 지도를 받을 것,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목적을 둘 것을 제안했다.

유영업 주님의보배교회 목사, 박익천 온생명교회 장로, 권오현 서울시민교회 목사가 각각 논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당회에 부목사가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장로교의 정치원리가 더 성격적이 되기 위해 목회자 재교육이 필요한지 등을 놓고 토론했다.

회 입장으로 접근해 일본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동역자 관계를 갖고자 노력했다”면서 “한국어나 한국요리 교실 개설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선교사를 이번 난제를 푸는 실마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승호 전 OMF 일본 선교사는 “일본인들이 이주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말만 들으면 양쪽 모두 나쁜 나라, 나쁜 국민들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선교사를 만나 대화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오해였는지 부끄럽다고 고백한다”며 선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으로 22년째 후쿠오카에서 사역하는 황석천 선교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한국교회는 오해와 편견 없이 화합과 상생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면서 “단기선교 계획을 철회하거나 적대시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일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상황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두 나라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 신자는 갈등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부름 받았다”고 전했다.

## “목사·장로, 섬김의 선도자 돼야”

예정고신 ‘장로교 교회 정치’ 서울포럼

한국 장로교회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올바른 교회정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9일 경기도 김포 꿈꾸는교회(김기주 목사)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고신 총회 소속 5개 노회가 주최한 제8회 서울포럼은 ‘장로교 교회정치, 바

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목회자와 장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태현 총신대 교수는 ‘성경적 장로교 정치원리’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행되



# 선교의 창 (12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 인도차이나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대응

최근 들어 한인 세계교회가 인도차이나에 대한 선교로 불타오르고 있다.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베트남이 그 대표적이다. 중국을 중심한 북방의 선교환경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하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는가? 때마침 인도차이나 반도에 속한 국가들이 문호를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인도차이나 반도(Indochinese Peninsula)는 지정학적으로 인도의 동쪽, 중국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어원은 인도(India)와 중국(China) 사이에 붙어있는 반도 지역이라는 뜻에서 본 딴 것이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로 도처에 밀림을 형성한다.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아 농사도 연 3모작까지 가능하다.

### 2. 사람들의 기질

여기 반도에 위치한 5개 국가들 중 태국을 제외하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메콩강이 네 나라를 관통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영향으로 불교, 힌두교가 주축을 이룬다. 게다가 토속신앙과 다신교적인 믿음이 혼합되어 있다.

이곳 사람들은 비교적 성품이 느긋하고 여유롭다. 자연환경과 불교의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 3.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19세기 영국,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의 오랜 지배로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저들은 기독교를 서양종교이며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써 자국 종교로 생각하는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왕과 국가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할 정도이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와 군부독재의 어두운 그늘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차이나는 20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다른 대륙과 비교해도 복음화

되지 않는 곳이 없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감정을 다스리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로써 사역자들은 불교를 넘지 못하면 이 지역에서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시작은 먼저 현지의 문화와 정치, 사회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나아가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본을 보여야 한다.

사역적으로 일방적인 설교는 좋지 않다. 저들이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수용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복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전달해야 한다. 이들의 뱃속깊이 박혀있는 유희본적 불교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데에는 꾸준한 접촉과 인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주류종족의 복음화이다. 이 나라들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사역적 열매는 크다. 저들은 복음에 대해 훨씬 수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다. 부답이 되더라도 누군가는 주류종족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그 나라의 민족 복음화는 요원하다. 넷째는 사역적 전략과 매뉴얼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도차이나는 모두가 불교권 나라이며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다. 이에 선교사들은 공동으로 사역전략을 연구하며 좋은 모델을 공유해야 한다.

### 맺음 말

세계 한인교회가 왜 인도차이나에 선교적 부답을 가져야 하는가? 2억5천만 명의 기혼자들 중 95%의 절대다수가 불교와 토착신앙의 오도(誤導) 속에 걸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이곳은 Window10/40에 속하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저들이 복음화 될 때 인도와 중국으로 복음을 역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저들에게 영적 주력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구 교회일까? No. 아프리카나 남미 교회일까? No. 중국 교회일까? 아직은 아니다. 이미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것이 한인교회이다. 우리는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는 인도차이나에 선교적 집중타를 가해야 한다. "메뚜기도 우월이 한 철"이란 말이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저 곳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시대의 바람, 한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멎기 전에!

jrson007@hanmail.net

##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2억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 불교권인 이 곳의 복음화율은 불과 5%도 안 된다.

## 한인교회는 저들에게 선교적으로 최적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다. 여기 사람들은 중국의 남부와 남서부의 한족과 소수민족 일부가 남하하여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이르러 원주민과 어울려 살게 됨으로 새로운 종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면적이 230만 2,000km<sup>2</sup>에 2억5천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기후로는 거의 아열대 또는 열대에 속하여 항상 고온을 이룬다. 몬순의 영향을 받아 건기와 우기의 차가 뚜렷하며, 우기(5-10월)에 연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한다. 건기(11-4월)는 비가 적게 내리고 지형적인 조건과 더불어 오지에는 트인 경관을 이루는 곳도 있

일년 사철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에다가 풍부한 강수량과 농작물, 지하자원 등으로 조급할 이유가 별로 없다. 무엇보다 전통종교인 불교의 영향이 크다. 철저한 수행을 통한 열반에 이르는 과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반대이기에 불교도들은 쉽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전통사회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젊은이들에게 사상체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긴 인내와 삶의 모범

이 가장 낮은 수치이다. 태국을 제외한 4국가는20세기 이후 인접한 중국의 영향으로 공산화와 더불어 선교의 문이 닫혔으나 최근 개방화와 더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모지에 1990년 대부터 한국인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현재 약 3,500명의 한인 선교사가 그 땅에서 수고하고 있다.

### 4. 불교 세계관과 접촉점

저들에게 불교는 생래적이거나 모든 사상과 가치체계 그리고 생활문화까지 영향을 미

### 5. 선교 전략

첫째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백성에게 통전적 선교가 필요하다. 절대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을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르고 닳도록 선교사를 의존하지 않도록 시작부터 출전략 속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교육선교이다. 가능한 불교에 쇠뇌되기 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부터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워야 한다. 기성세대는 복음으로 회심했다 할지라도 잠재해 있는 불교세계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 1. 일반적 이해

# 드라마 구약 (13)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사를 통해서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세계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주실 것이고, 그 회복은 성전의 재건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에스라사와 느헤미야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총독 스톱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리더로 하여 돌아온 1차 포로귀환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귀환단은 재건된 성전에서 말씀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느헤미야가 중심인물인 3차 포로귀환단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받은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라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책 예언대로 400년 지난후 엘리야 승천한 곳에 세례 요한 등장

하고 있습니다.

### ▲말라기 내용

그러면 말라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주셨던 '경고'라고 하십니다. 왜 경고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들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6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의 제물로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흠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제사는 참 번거로운 일'이라고 했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생명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생각나시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 할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는 미리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는 어떤 심정으로 와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4:5-6).

아버지와 자녀를 연결시켜 줄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으로 구약은 큰 커튼을 내립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400년이 지난 후, 엘리야가 승천한 곳에 엘리야의 심정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눅 1:17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약 400년의 시간은 경과되지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딱 붙어있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구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하! 다음 회부터 드라마신약이 이어 집니다.

dsukim@gmail.com



우리의 흠있음이 흠없는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에 감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은 없고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마저도 번거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그런 종교행위로 전락한 제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지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며 저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실 것을

평강의 언약대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민수기 25장 바알브올 사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신전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처소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죽였고, 이에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자손인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타락한 저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내실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3장과 4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 아메리카지역 헌장의 구조변화와 중남미지역 선교의 새로운 모델 개발(5)

강성철 선교사

(아메리카 지역선교전략연구소)



### B. 아메리카지역 현황 및 선교의 현황

1) 일반적 동향  
아메리카지역 특히 중남미지역은 유럽 국가들의 지배와 착취, 그리고 혼혈로 인한 종족형성 및 노동착취를 위한 흑인노예의 슬픈 역사로 점철된 민족이다. 아직도 식민 역사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 대륙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냉전이후 정치적으로 반미성향의 좌경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 미약한 경제구조, 높은 실업률과 이자율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마약의 생산(주로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아마존 국경 등)과 중간 기착지인 멕시코와 중미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소비되는데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마약과 갱단들로 인하여 사회가 불안하며, 경제적인 연유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철새처럼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 한때 아르헨티나가 눈에 띄게 이동하였는데 지금은 아이티에 이어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2018-2019년에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

각 나라와 사회마다 신앙, 가치, 관습, 제도들이 다르듯이 문화 또한 다르다.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멕시코로부터 아르헨티나에 이 대륙에는 33개국이 있고 비록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가 되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독립하였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토착 원주민의 문화가 달랐고, 식민정책이 달랐고, 독립 후 각 나라마다 근대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특정짓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정의할 때 “혼합문화(culturas híbrida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아르헨티나 출생의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Nestor García Canclini 박사의 저서 “Culturas híbridas -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에서 사용됨).

역사적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에

서는 원주민들인 인디언 문화에 식민지 지배를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문화가 섞였고, 또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하므로 부족했던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아프리카인들의 문화가 섞였다.

한편 독립 후에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앵글로아메리카, 특히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문화가 대중적인 것은 북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틴 사람들이 합리적이기 보다 감성적이고, 직선적이기 보다 곡선적인 것은 아시아인들의 문화와 유사한데 이는 인디언 문화의 영향이다. 하지만 유럽 식민지 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기존의 인디언 문화보다는 유럽문화가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 라틴아메리카는 유럽과 혼합문화, 독립 후엔 미국 영향 받아 기독교 중심축 이동지...카톨릭교회 감소와 개신교회 급성장

그리고 Santeria(무속신앙)에는 아프리카 종교 의식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문화는 인디언문화도 아니요 유럽문화도 아니요 아프리카문화도 아니요 북미문화도 아닌 혼합문화라 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교회의 해외선교 역사와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역사는 아메리카 지역 2019, 아메리카 선교백서에 기고한 박기호 교수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선교의 동향

지난 2000년간 기독교계를 주도해오던 서구교회의 몰락과 비서구교회의 급성장으로 기독교계의 무게 중심이 제 3교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남미는 천주교의 중주국으로서 급성철향 같았는데 천주교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개신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볼 때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교회가 급성장해가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이들 교회가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분석가는 2030년이 되면 남미가 세계 최대의 기독교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GMS 총회세계선교회는 남미와 중미, 카리브해를 비롯 멕시코, 캐나다,

미국을 포함하여 아메리카 지역으로 정하고 2019년 2월 18-21일 오펜지 카운티 나침반교회에서 “GMS아메리카 지역 지부장, 코디네이터 선교전략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중남미에서 가졌던 선교대회 및 전략회의는 2007년 2월 12-15일 브라질 상파울로prince TTower Hotel에서 2007 GMS중남미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라틴선교가 남긴 과제”를 다루며 “새로운 발돋움, GMS 라틴아메리카 선교”란 주제를 다루었다.

2017년 5월 17-20일 브라질 Hotel Fomte Santa Teresa에서 “복음의 횃불을 들라”는 주제로 GMS 중남미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1)대부분이 카톨릭 국가이므로 복음화 된 지역으로 간주하였고 2)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항공료 및 경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외면하였고

3)40/10창 운동으로 모델링 지역인 아시아 북방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므로 관심 밖의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인식의 변화 속에 다시 선교의 장이 열리고 서서히 사역이 분류되어지고 선교에 있어서 협력선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공동사역개발과 선교협의의, 선교전략연구소가 설립되어 한국선교부와 세계선교회와 교류가 시작되었고 선교사들의 영적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남미3국수련회, 시드(seed)선교회 모임, 외향선교회, GP선교회, 세계말씀선교회 등이 남미에 관심을 갖고 전략회의와 선교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아메리카지역은 영어권, 스페인어권, 포어권, 일부가 프랑스어와 화란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포어권이 동등 언어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마주한인교회가 아메리카지역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며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교사원을 발굴하고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선교전략들이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중남미 선교동향을 소개한다.

(16면으로 계속)

## 원로칼럼

### 목회서신(중)

후임목회자들에게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대기업 입사시험 치르듯 도도한 경쟁을 제치고 후임이 됐습니다. 그만큼 역량과 실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회 감독관이고 목사 감사원이지만 전임 목회자의 자리는 그 영향력이 큼니다. 겉그림과 부딪스렵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고 그림자도 없앨거리지 않기를 바라는 몸

짓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고 큰코 다치게 됩니다.

후임자가 취할 태도는 원로목사님을 선배로, 스승으로, 아버지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탈이 없습니다. 내가 전임자보다 실력도 좋고 설교도 잘 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교회행정에도 능하다는 생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꺾이지 시작하면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흠평이 터지게 됩니다.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옛말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제 무덤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니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 교우들에게

전임자에게 잘한 사람은 후임자에게도 잘합니다. 전임자를 괴롭히던 사람은 그 버릇이 재생되어 후임자도 괴롭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장점을 “눈이라도 빼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에게는 “그리장새 알렉산더를 경계하라. 그는 나를 심히 괴롭힌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특정 목석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도 내 뜻에 안 맞고 나를 홀대했다는 이유로 판지를 걸고 열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인테리어업을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 수리를 자기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목사 반대운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개는 자기한테 교회 건축공사를 맡기지 않겠다는 이유로 목사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날 두고 하는 말이냐’라며 두 눈을 치켜뜨는 바로 그 사람이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천주교처럼 교황을 신격화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목회자로 인정합시다. 너나 나나 동일하다는 오만한 발상에 중지부를 찍읍시다.

####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구동성 앞으로 목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의식변화, 견집기 힘든 사회변화와 변동, 가치관의 전도현상, 몰락주의와 세속화, 지도력의 약화, 교역자 양산 시스템, 무인가 신학교의 난립과 배출 등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길을 막고 말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TV방송(EBS)이 특별기획한 ‘극한 직업 옹기장이’라는 프로를 방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흥으로 빛은 옹기를 불가마에 구워 옹기 향아리를 만듭니다. 하루에 5백-1천개를 판매하는데 향아리를 트럭에 실어 운송합니다. 옹기와 옹기 사이에 틈이 있으면 서로 부딪쳐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처럼 틈새 없이 붙어 실으면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옹기 달인은 옹기를 만들 때 혼을 불어넣는다고 했고, 30년 정도는 옹기를 빚어야 옹기장이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옹기장이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고 다듬고 굽고’라고 합니다. 뜻하는 바가 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작은 틈새 때문에 옹기 향아리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미래 운송이 가능하지만 서로 부딪치면 깨집니다.

한국교회가 깨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기독교 세력들과 사탄의 주구들입니다. 그들이 박수갈채하도록 방치해야 됩니까? 원로와 후임의 갈등 때문에 교단과 교단의 불협화음 때문에, 목회자와 당회원의 불화 때문에, A집단과 B집단이 전략적 이해득실 때문에 맞부딪쳐 깨지게 된다면 파괴 범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초대합니다

### 제2회 현대설교학에 근거한 창의적(성경적) 설교클리닉

21세기 디지털 문화 혁명의 시대에 창의적인 성경적 설교는 목회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 밖에서 영화, 미술, 음악, 건축, 패션, 사진, 뮤지컬, 시, 미디어 아트 등 많은 부류의 창의적 예술이 일상의 감수성을 넘어 기독교적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강단의 설교 또한 일상에 넘쳐나는 창의적 예술성과 성경적 기독교 영성에 부합하는 충실한 내용을 전달 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본 강연은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현대 복음 설교학의 이론에 근거한 창의적이며 성경적인 설교를 여러 목회자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실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예술성과 창의성을 개발견하고 그것을 설교 실습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 시대의 새 설교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초대합니다.

#### 강사

양 성구 박사 Geoge Fox 대학교, 설교학 교수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Vanderbilt University) 예배와 설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서 출판된 저서로는 “Evangelical Pilgrims from the East: Faith Fundamentals of Korean American Protestant Diasporas” (Palgrave, 2016)과 “King’s Speech: Preaching Reconciliation in a World of Violence and Chasm” (Cascade, 2019) 등이 있다. 현재 “예술과 설교(Arts and Preaching)” 라는 주제로 다음 책을 저술 중에 있다. 복음 설교학회의 예전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 강의 제목

09:00 - 10:40 현대설교학이 제시하는 창의적(성경적) 설교의 핵심과 새 스타일  
10:50 - 12:30 디지털 문화 혁명시대에 부응한 새 시대 창의적(성경적) 설교. 다양하고 참신한 예술자로 활용 어떻게?(Part1: Film)  
12:30 - 01:10 점심, 대화, 추천도서 안내 (구입)  
01:10 - 02:50 디지털 문화 혁명시대에 부응한 새 시대 창의적(성경적) 설교. 다양하고 참신한 예술자로 활용 어떻게?(Part2: Fashion)  
03:00 - 05:00 주일예배와 절기예배를 위한 창의적(성경적) 설교 작성 워크숍

#### 일시&장소

8월 8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뉴저지 장로교회 올랜도 교육관 (김도환 목사 담임)  
222 Ramapo Valley Road, Oakland, NJ 07436

8월 9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뉴욕 그레이트네교회 (양민석 목사 담임)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 주관

미동부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육, 연구, 중재, 대화, 출판 Since 1982)  
46회 목회자세미나, 27회 교사강습회, 최근 4회 교회강습회, 1회 설교클리닉, 한양어린이 찬송가, 행동하는크리스천 발행, 언더우드서거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와 찬양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합 예배 포함 주관

#### 후원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뉴저지한인목사회, 커네티컷 한인목사회, 필라델피아한인목회연구원, 개신교수도원수도회

#### 참가비

\$75(교재와 중식 포함)  
7월31(수)까지 조기등록하여 \$60로 혜택 받으실 분은 아래의 주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Pay to Order: LLS P.O. Box 750734, Forest Hills, NY 11375

#### 등록및문의

718-213-8645 (김 영호 목사)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목갈이 주어질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루틴 같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레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성한 것에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 하는 전략가의 치밀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

###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9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원로목회 담임목사  
동부개척장로의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다민 TV 이사  
(전) 해전대학 교의 담임목사  
(전) 해전대학 교수 및 교목실장  
총신대학교 (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Th.M)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D.Min)



# 영어로 보는 성경 (2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 Jeremiah 29:10-12

10) This is what the Lord says: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ood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12)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NIV 2011)

#### WORD & IDIOM

\* complete: 완결하다 \* fulfill: (예언 등을) 성취시키다 \* declare: 선언하다 \* prosper: 번성시키다 \* harm: 해치다, 손상시키다 \* call o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 GRAMMAR

10)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70년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때 바벨론을 위하여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ood promise 나는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선한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 오기위한 ⇒ 바벨론을 위한 70년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때 나는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이곳으로 데려오기로 한 선한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다.

\* <what + S + V> =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what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은 <주어가 ~ 하는 것>이다.

Ex) I don't understand what you want. what I want is ~.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 이다.

\* <명사 + To 부정사> = ~ 명사 뒤의 to 부정사(원형동사)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는 앞의 my good promise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수식해 주고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도 같은 용법(N + to V)을 보게 된다.

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안다 너희를 위한 주께서 선언 하신다 ⇒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희를 번영케 하는 계획 그리고 너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닌,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 ⇒ (그 계획이란) 너희를 번영케 하는 계획이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인 것이다.

\* declares the Lord, 다음의 " " 안의 내용은 주께서 계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문장이다. \* <To + V>의 부정은 to 앞에 not를 넣는다.

12)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그 때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다 and I will listen to you. 그러면 나는 너희(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 그때에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와서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 <Then you will call on me ~>에서 조동사 <will>은 <and>로 이어지는 뒤의 문장까지 그 영향을 미치므로, come과 pray앞에 will의 의미를 넣어 해석을 해야 한다.

#### STUDY & THOUGH

■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의 기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곧 유다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하신다. 사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들에게 정해진 것으로 회개와 근신의 날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다.

■ B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생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의는 결코 그들을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평화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이다.

■ The hardship you are facing right now is to prepare you for the peace and hope you will later experience.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jameshur63@hotmail.com

## 월 사라의 믿음(히11:11-12)찬8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째, 단산한 상태에서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경수가 없는 것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믿음을 가진 것은 과학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증거입니다. 둘째, 양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초자연적인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산 믿음

은 역사 곧 사건을 일으킵니다. 개인은 죽어도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시기 때문입니다(12).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확신과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성령이 발생 시키신 증거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 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히11:13-16)찬511장

아브라함을 위시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제한을 받았어도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첫째, 현재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이던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며, 현실에 그 약속을 모두 받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취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멀리서도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 믿음은 외방의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잡히바 뻔해도 잡힌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심령으로 살았기에 고난 속에도 소망이 넘쳤습니다. 셋째, 본향을 찾았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의 난관을 비관하지만 본향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낙관주의자로 살아갑니다.

## 수 이삭을 바친 믿음(히11:17-19)찬82장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한 것은 그는 모든 이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시험을 통해 연단받았습니다(17).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해지고 순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시키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이성을 초월한 요구로 그의 경외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독자를 바쳤습니다(17-18).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말씀)이 더 귀함을 알았습니다. 아담의 실패 요인을 그는 잘 극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착념한 자였음이 들어났습니다. 더 큰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19).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지식으로 성장했습니다.

## 목 축복하는 믿음(히11:20)찬429장

이삭의 믿음은 가정의 장래를 주께 맡기고 축복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장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장래를 헤아릴 수 없어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려는 갈망을 가진 자로 섰습니다. 둘째, 복을 베푸는 영적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믿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 자녀에게 믿음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몸은 서약

했어도 영적권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셋째, 가정의 신령적 일을 책임졌습니다. 다른 족장에 비해 이삭의 업적은 미미해도 주어진 가정에 대한 영적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정생활이 건강한 자가 교회의 기둥이 되며 하나님나라의 쓰임 받는 일꾼이 됩니다. 믿음의 영권을 우리 가정에 사용합시다.

## 금 연단된 믿음(히11:21)찬482장

야곱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성화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탐욕에 노예가 된 야곱은 세상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여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탐욕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복 베푸는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삭처럼 가정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자신의 영적권위를 믿음으로 행사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들의 장래연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성화된 모습, 탐욕을 던지고 지파이름을 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경배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자아가 부인되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토 기업을 사모하는 믿음(히11:22)찬434장

구약의 족장들이 그들이 당한 그 환경에서 믿음의 산 것이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험악한 일을 거쳤어도 어떤 점이 요셉의 믿음의 행동입니까? 첫째, 그는 임종을 잘 맞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있음이 복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됩니다. 둘째, 장래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현실에 충실한 것이 단지 가문의 영

광을 나타내는 차이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따라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대보고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사모했습니다. 셋째, 기업을 사모했습니다. 역시 그는 장차 나타날 영원한 기업에 동참자가 되기 위해 세월이 지난 후라도 자기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죽어서도 그 복에 참여하려는 요셉의 사모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목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남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뚝목장(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n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주둔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8:00(토) 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웨스 경윤,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토)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37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Torrance, CA 90018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Tel: (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목요일학교: 저녁 8: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cca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45(101층)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오전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enceg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누구의 돈인가? 하나님 아니면 나?

## CT, 래리 버켓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다섯 단계 소개

우리는 금전관리의 기본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현금하라, 저축하라, 지혜롭게 지출하라, 빚을 지지 말라, 예산에 맞춰라, 등등. 주일 아침 일정액을 헌금함에 넣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멋진 표현인 "청지기 정신"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 모인 것이다.

"청지기 정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크리스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 현금 바구니에 넣는 일부분 하나님의 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다.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다섯 단계가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

하나님은 제일 어려운 단계를 맨 처음에 놓으셨다. 일단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다른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신다. 돈, 시간, 부모, 형제자매, 이성 친구, 교육, 자동차, 옷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이다.

빠진 게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록에 추가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신다. 실제로 스스로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믿으면 그것이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지기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웹

들에게 더 나은 금전관리법을 가르쳤던 래리 버켓(Larry Burkett)은 수년간 그 해답을 제시해왔다. 청지기 정신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래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Whose Money Is It, Anyway? How you handle your cash says a lot about what you value the most).



스터 사전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치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육체적, 물질적,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

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무엇도 절대 이 첫 단계를 대신할 수 없다.

### 2단계: 과용하지 말라

우선, 구입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 계 획해야 한다. 각 품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갖고 싶은 것인지, 욕망하는 것인지 결정하

자. 음식이나 옷처럼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갖고 싶은 것 역시 아주 중요해 보일 수 있다. 새 청바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장 비싼 것이어야 할까? 이것이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의 차이이다.

욕망하는 것은 정의하기가 더욱 어렵다. 정확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합리화하면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운전하는 고물 자동차가 잘 굴러가긴 하지만 새 차를 사면 고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좋은 물건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 중요한 것을 놓쳐 빚을 지고 어려움에 처한다.

둘째, 통장을 만들어 액수와 상관없이 매주 또는 매달 저축하도록 하자. 금액은 저금하는 행동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 3단계: 정기적으로 십일조를 드리라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로 십일조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의 첫 부분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3:9).

십일조의 액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저금하듯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선단체나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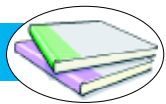
### 4단계: 도를 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욕망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러한 욕구와 바람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경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눅9:23).

### 5단계: 성급한 결정을 피하라

우리는 늘 광고나 동료들의 압력, 개인적인 욕구로 성급히 물건을 구매하고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려는 유혹에 부딪힌다. 흥청망청 쓰고픈 욕구를 자제하자. 성경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라고 말한다.

## 책 소개



# "미주크리스찬문학" 제 30집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발간



최선호, 황의영 목사의 글도 자리했다.

한편 올 신인필자로는 시 부문 당선 원대현 '꽃', 가작 김희승 '님의 훈', 조진숙 '반달' 장

### 한 걸음 더 성장해 좋은 열매 맺길

려상 이민배 '봄나물', 박성순 '그대 옆에 있음에'와 수필 부문 당선 최준배 '행복이란', 가작 박동배 '이모작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장려상 김장진 '주례가 두고 간 하얀 장갑', 박용호 '들이 수목됐다.

손을 들어라', 생활수기 부문 장려상 신행원 '그해 겨울 방한 칸 선물', 신앙수상 당선 박동식 '가룟유다가 예수 어머니께 드리는 어느 봄날의 마지막 편지'

본 협회 회장 정지윤 목사는 "이제 제 30집 미주크리스찬문학은 한 걸음 더 성장해 좋은 열매를 맺게 한 신앙과 사랑과 믿음이 밀거름이 돼 함께 미래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고 '나'란 존재의 확인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인들은 좀 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든 회원들은 각자의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문인들로 거듭나기 바란다

고 피력했다.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에서는 매년 신선했던 문인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249-0771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14면에서 계속>

▲기독교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기독교 중심이 축이 유럽과 북미주에서 남미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동되고 있으며 기독교 인구의 분포가 백인(1910년 80%에서 2010년 40%로 감소)에서 유색인종으로 변화되고 있다.

▲카톨릭교회 감소와 개신교회의 급성장

중남미 카톨릭교회가 1960년 92%에서 2010년 77%로 감소하였으며 현재 개신교회는 열살바도르(32%) 니카라과(30%) 브라질(26%) 과테말라(24%) 온두라스(23%)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

▲선교사를 받았던 나라에서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COMIBAM(1987년 브라질 상파울로)을 중심으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동안 선교사를 받던 라틴아메리카는

선교사들과 동역하면서 이제는 선교적교회로 발돋움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변화하고 있다. 1987-90년 60개 단체에서 1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지금은 400개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주 파송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다

▲선교전략의 다양화  
△다민족 교회의 특성을 살려 선교후보자 발굴, 훈련, 양육, 성

장, 성숙한자를 같은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파송 △북미주교회의 적극적 선교동참 즉 단기선교사 파송만 아니라 교회개혁, 전문인선교사 파송, 선교지도자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소망 △교회 개혁 - 열매전 김정훈 GMS이사장과 전철영 선교총무가 브라질을 방문, 브라질에서 가장 큰 IPB장로교단 내지선교부장과의 회의를 하는 중 브라질 전국 40개 지역을 선정, 함께 개척교회

를 세워나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2019년 5월7일 IPB 내지선교부장인 뱀에로스교회 아리바바 목사와 다시 만나 GMS 브라질남부지부와 공동 사역으로 교회개혁 사역을 하기로 하였다. △미 Media 온라인 신학교 등) △BAM선교 개발 스미주해 온 중국인선교, 아랍인 선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동반자 선교 중남미는 타문화권 안에서 한

국민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포교회가 많이 있다.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는 풍성한 선교자원들이 있다.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2세들이 있으며 사업에 성공한 재력가도, 다양한 실력자, 선교를 열망하는 헌신자들이 가득하다. 이들에게 선교의 의식을 심어주고 선교의 방향과 가치관을 심어주면 좋은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다.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기밀 에이블먼 / 규장), 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비 / 규장),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 / 규장), 행복예수 (김형석 / Denstory),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www.joyla.com	
조이 서적 213-380-8793		